

중산시성 서기 만난 이재용 “협력 확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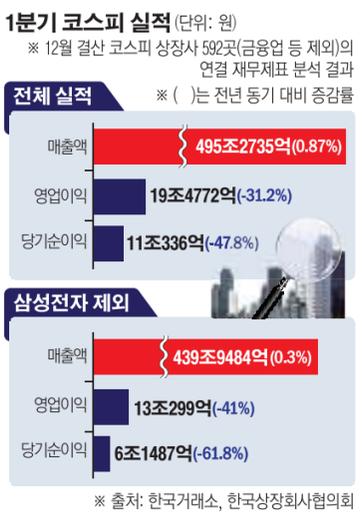


원유현 사장 “농기계도 온라인 판매 시대” 13



코로나에 상장사 순익 ‘반토막’

1분기 영업이익 31% 순익 48% ↓
1000원어치 팔아 22원 남겨
삼성전자 제외하면 더 심각
서비스 등 7개 업종 수익 감소
음식료·의약품·IT는 ‘호조’



순이익은 각각 41%, 61.8% 줄며 감소폭이 더 커졌다. 업종별 실적을 보면 의약품(16.62%), 음식료품(9.07%), 운수장비(6.53%), 통신업(3.52%) 등 8개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한 반면, 의료정밀(-12.18%), 철강금속(-7.05%), 섬유 의복(-6.61%) 등 9개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 순이익의 경우 음식료, 의약품 등 4개 업종은 흑자 폭이 커진 반면, 서비스업, 철강금속 등 7개 업종은 줄었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코스피보다 나은 편으로 실적이 줄었다.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944개사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7조2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76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8% 줄었고 순이익도 35.17% 쪼그라든 1조7636억 원을 기록했다. IT 하드웨어 기업의 순이익은 13.9% 증가했지만, IT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593개 상장사의 순이익은 56.8% 감소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윤기쁨 기자 modest12@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1분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줄었다. ▶ 관련기사 3면 19일 한국거래소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592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결기준 매출액은 495조27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7%(4.3조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19조4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2%나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1조336억 원으로 47.8% 급감하며 사실상 반토막 났다. 이에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9%)과 순이익률(2.2%)이 1년 전보다 각각 1.8%포인트, 2.1%포인트

트 떨어졌다. 1000원어치의 물건을 판 경우 영업이익은 39원이고 이 가운데 손에 전 돈은 22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제외(매출액 비중 11.17%)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매출액은 439조94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불과하고 영업이익 및 당기

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을 3분기 ‘위험평가’ 받는다

자산 5조 이상 복합금융그룹 9월 내부거래·지배구조 등 ‘주요 위험요인’ 공시해야

금융당국이 3분기 중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위험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9월부터는 통합공시를 통해 내부거래, 소유·지배구조 등 금융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순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전이위험·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평가’ (단일 평가체계)를 3분기 중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세부기준을 확정 후 3분기 중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모형으로 6개 금융그룹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룹위험은 △재열사 위험 △상호 연계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1회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각 평가지표를 가중 평균

해 5등급 15단계로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부문등급과 전체등급을 각각 산출할 계획이다.

각 금융그룹 평가 결과는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된다.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 공시는 법 제정 이후 시행된다.

또 9월 말 금융그룹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을 처음으로 통합공시한다.

통합공시는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한다. 분기 공시(분기 말 종료 후 3개월 내)와 연간 공시(분기 말 종료 후 5개월 15일 내)가 각각 이뤄진다.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3분기까지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순 부위원장은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돼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며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꼼꼼하고 실질적 금융그룹 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원 원내대표 만난 박용만 회장 박용만(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박 회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얘기하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주류시설서 음료·빵 생산한다

주류 규제 개선... 수제맥주 캔 생산도 쉬워져

앞으로 중소 주류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무알코올 음료나 술빵 등 부산물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됐으나 주류 수

입은 늘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2018년 국내 주류시장은 0.5% 역성장했으나, 수입량은 24.4% 증가했다. 생산 단계에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타사 제조시설을 통한 OEM이 허용된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돼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하다. 이번 조치로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수제맥주 제

조업체가 추가 캔입 시설투자 없이 손쉽게 OEM 방식으로 캔맥주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신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주류 제조 시설에서 무알코올 음료나 부산물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유통 분야에선 주류 제조·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허용된다. 판매 단계에선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명확해진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증시 랠리

美 모더나 임상 성공 소식에
다우 3.85%·유럽 증시 급등
코스피 2.3% 닷케이 1.5% ↑

모든 불안의 해법은 역시 ‘백신’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짓눌렸던 시장이 깨어났다. 새로운 백신 개발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 관련기사 2면

18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11.95포인트(3.85%) 급등한 2만4597.37에 거래를 마쳤다. 4월 8일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90.21포인트(3.15%) 뛴 2953.91에, 나스닥지수는 220.27포인트(2.44%) 상승한 9234.83에 각각 장을 마쳤다.

유럽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4.29%, 독일 DAX지수 5.67%, 프랑스 CAC40지수는 5.16% 각

각 뛰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지수도 5.1% 상승했다.

시장은 이날 전해진 백신 개발 진전 소식에 환호했다. 미국 바이오 벤처 모더나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와 함께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mRNA-1273) 임상 1상시험에서 참가자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모더나는 7일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NA-1273’에 대한 임상 2상시험을 허가받은 상태여서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모더나는 7월 임상 3상에 들어가 내년 초 최종 성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미국발 훈풍에 19일 아시아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5포인트(2.25%) 오른 1980.61로 마감했다. 일본 닷케이225지수는 1.49% 오른 2만433.45로 2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다. 김서영 기자 0jung2@

ON LINE
오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찾아갑니다
2020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과 기준 -
이투데이 배너 클릭 YouTube facebook 'CSR국제콘퍼런스' 검색

한발 앞서나간 美... 모더나 “임상1상 항체 형성 확인”

8개 백신 후보 임상시험 중... 7월 수천 명 규모 임상3상 전환 J&J·사노피 등도 개발·양산체제 구축... 안전성 확보가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완전히 잠재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제약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미국 바이오 의약 벤처 모더나가 18일(현지시간) 낭보를 전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1상에서 45명 참가자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고,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제 공급 체제가 갖춰지면 경제 재개에도 속도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날 코로나 백신의 첫 ‘개가’를 올린 모더나 외에 미국 존슨앤드존슨(J&J)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프랑스 사노피 등 제약사들은 백신 개발과 함께 양산 체제 구축에 착수했다.

모더나가 개발과 병행해 양산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모더나는 ‘mRNA-1273’을 포함해 8개 백신 후보가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다. 스테판 반슬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6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임상시험 2상을 조만간 시작하고 7월에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3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는 1일 스위스 제약업체 룬자와 백신 생산을 위한 10년간의 협업 계약을 발표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학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국과 스위스에 생산 거점을 세울 계획이다. 7월 첫 출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연간 10억 개 규모의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각국 정부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자금을 지원하고 의약품 승인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위프 스피드 작전’을 실행에 옮긴다고 발표했다. 유망한 백신 후보를 압축한 다음 이들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과 병행해 기업 생산체제 구축을 자금 면에서 지원하는 등 개발·생산 프로세스를 단축해 연내에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옥스퍼드대학교,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등에 백신 개발을 위해 지난달 각각 약 2000만 파운드(약 299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살펴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일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 승인을 낸 데 이어 일본 정부도 특례 승인 절차를 적용,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입했다. 유럽연합(EU)도 조건부로 판매를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이 최근 코로나19 억제제를 위한 봉쇄 조치 완화에 들어갔지만, 경제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의 상용화가 필수다.

원래 백신 개발은 임상시험 등 복잡한 과정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현재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 특례 조치로 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평소보다 개발 기간이 짧은 만큼 안전성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효한 백신이 조기에 개발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임상시험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후보 8종

※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개발기관	국가	백신 플랫폼	참조 플랫폼
모더나/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증연구소(NIAID)	미국	RNA	여러 후보 물질
칸시노바이오로지컬/베이징생명공학연구소	중국	비자가복제 바이러스 벡터	에볼라
시노팜/우한생물제품연구소	중국	불활성화(사백신)	-
시노팜/베이징생물제품연구소	중국	불활성화(사백신)	-
베이징시노팜	중국	불활성화(사백신)	사스
옥스퍼드대	영국	비자가복제 바이러스 벡터	메르스, 인플루엔자 등
바이오엔테크/푸싱제약/화이자	독일·중국·미국	RNA	-
이노비오제약	미국	DNA	여러 후보 물질



제넥신, 내달 임상 준비... SK바이오·신라젠도 속도

국내 기업 개발 ‘구슬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발 벗고 나선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의 모더나가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면서 국산 백신의 개발 속도와 성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체 임상 진입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이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은 제넥신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이 연구하는 ‘GX-19’다. GX-19는 제넥신과 바이넥스, 국제백신연구소, 제넥바이오, 카이스트, 포스텍 등 6개 기업·기관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DNA백신 후보물질이다.

DNA 백신은 체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원이 생성될 수 있도록 특정 유전자를 인체에 투입,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제넥신은 GX-19를 영장류에 투여해 야생형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에 대항하는 중화항체 생성을 확인했다. 이달 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신청 자료를 제출, 6월 초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기업	종류	현황	임상 진입 예상 시기
SK바이오사이언스	서브유닛 백신	비임상	9월
제넥신 컨소시엄	DNA 백신	임상시험 신청 준비	6월 초
신라젠	백시니아 바이러스 매개	동물실험	미정



이번 컨소시엄에서 DNA 백신 GMP 생산을 담당한 바이넥스는 최종 선정된 GX-19 후보물질의 대량 생산을 완료했다. 제넥신과 바이넥스는 향후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상업용 대규모 DNA 백신 생산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3월 코로나19 백신 후질 발현에 성공, 동물 효력시험을 거쳐 비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에 보유한 합성항원 제작 기술과 메르스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회사는 질병관리본부의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부터 360만 달러(약 4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 공정

발 및 비임상 시험을 수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최적의 항원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9월께 임상 시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동물실험을 시작했다.

신라젠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과거 200년 동안 천연두 바이러스 백신으로 수백만 명에게 접종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것으로 알려진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한다. 신라젠 관계자는 “구체적 임상 진행 계획을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초반 개발 속도에서 뒤처질 수 있다”면서 “백신 개발은 장기전이기에 때문에 현시점에서 개발 속도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부모님께

선생님께

부부사이에도

고맙다 마그비!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액상형으로 흡수가 빠른, 마그네슘 제제

마그비스피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 함유 (마그네슘으로서 150mg)

마그비 연질캡슐도 있습니다.

[광고심의필 : 2020-1531-002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기지가 커는 회사채 시장... 기업들 '긱간 채우기' 올인

줄이는 회사채 증액 발행

대기업들이 계획했던 회사채 발행 규모를 늘리며 자금 블랙홀로 떠올랐다.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다시 투자에 나선 데다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긱간을 채우려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적-금융시장 경색에 신용등급 추락 위험에 놓인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가산금리)을 내며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A-' 등급인 LG CNS는 회사채 발행금액을 3000억 원으로 늘렸다. 7일 수요예측에 발행 예정액 1600억 원의 여섯배(9300억 원)의 뭉치돈이 몰리면서 조달 규모를 늘린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이슈에도 3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1조4100억 원어치 자금이 몰렸다. 덕분에 발행 규모를 모집액의 2배인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4배가 넘는 주문이 들어온 LS일렉트릭(옛 LS산전)은 공모채 발행액을 1500억 원으로 늘렸다. KB금융지주는 4000억 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가 몰리면서 발행액을 1000억 원 늘려 자금을 조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00억 원 증액한 1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CJ대한통운은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서 총 4600억 원의 자금을 모아 계획보다 500억 원 늘려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 아주산업, 롯데지주, 롯데쇼핑, 포스코에너지, 메리

저금리 기조에 '자금 블랙홀'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영향 수요예측 흥행에 조달 규모 늘려 기관도 채안펀드 매입 대상 확대

기업 간 온도차는 여전

S&P, 국내기업 30% '부정적' 전망 신용 낮은 기업 자금조달 어려워 채권 발행 위해 고금리 제시해야

츠증권 모두 증액 발행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증액 발행은 회사채 시장에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 잇달았던 증액 발행은 목적이 같다"며 "3월부터 가파르게 치솟았던 기업어음(CP) 금리가 최근 안정세를 찾은 등 회사채 수요가 유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금리에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해 놓으려는 기업들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몸을 움츠렸던 기관들도 다시 투자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A+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 등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 회사채를 편입하기로 하는 등 신용 경색 진화에 나서자 기관들이 다시 발길을 돌렸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기업 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현대차의 5년 만기 회사채 기준 발행 금리는 연 1.81%였다. 채권평가사 평가금리(민평금리)에 0.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LG CNS와 같은 등급인 LS일렉트릭은 민평을 조금 웃도는 11bp(1bp=0.01%포인트)에 자금을 조달했다. 반면

대한제당(+70bp), 하나에프앤아이(+80bp), 한일홀딩스(+70bp) 등 A급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 신용 전망이 좋지 않아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올해 상반기 수익성 악화 전망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부정적 등급 변동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가 등급을 부여하는 한국 기업 중 약 33%가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거나 부정적 관찰 대상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도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업으로서 부담이 커진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히 부실해지는 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 대형 증권사 채권담당 임원은 "추락전사(신용등급 하향)로 낙인 찍히면 글로벌 시장 확대나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투자등급을 보유한 220개 기업이 1년 내에 갚아야 할 회사채는 33조1000억 원 규모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발행종목	수요예측일	신용등급	예측금액(억 원)	발행금액(억 원)	만기(년)	금리밴드(bp, %)			낙찰률(bp, %)	유효수요(억 원)	유효경쟁률(배)
						기준	하단	상단			
동아쏘시오홀딩스	2020년 4월 27일	A0	450	520	3	등금민평	-50	50	42	560	1.24
KB금융(신종)	2020년 4월 27일	AA-	2700	3250	NC5	절대금리	2.7	3.7	3.3	5230	1.94
소계			3000	750	NC5		2.8	3.8	3.43	1330	4.43
대한제당	2020년 4월 27일	A-	250	250	3	개별민평	-30	70	70	250	1.00
소계			400	150	5		-30	70	70	150	1.00
현대자동차	2020년 4월 28일	AA+	2000	3900	3	개별민평	-30	30	12	9100	4.55
소계			500	1300	5		-30	30	5	2800	5.60
소계			3000	6000	7		-30	30	5	2200	4.40
하나에프앤아이	2020년 4월 28일	A-	700	930	2	개별민평	-20	80	80	930	1.33
소계			500	600	3		-20	80	80	600	1.20
소계			1200	1530						1530	
엘에스일렉트릭	2020년 4월 28일	AA-	1000	1500	3	개별민평	-40	40	11	1800	1.80
한일홀딩스	2020년 5월 6일	A+	1000	1500	3	개별민평	-30	70	70	1510	1.51
엘지씨엔에스	2020년 5월 7일	AA-	1000	1500	3	개별민평	-10	40	5	4800	4.80
소계			300	500	5		-10	40	2	2600	8.67
소계			300	1000	7		-10	40	-3	1900	6.33
소계			1600								

* 출처: Dart · 현대차증권

등급 하향 3곳·전망 하향 14곳 기업 신용등급 '뚝·뚝·뚝'

정유·화학사 코로나19 직격탄 올해 '추락전사' 기업만 21곳 신용 강등, 금융위기 수준 웃돌 듯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1분기 기업 실적에 반영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움직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5월 들어 현재까지 등급 하향된 기업은 선진·금호전기·맥스토텍 등 3곳이다.

등급 전망이 하향된 기업은 한화토탈·파라다이스·파라다이스글로벌, 녹십자·와이지원·서연이화·S-OIL,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에이치솔루션, 한화에너지, 예스코홀딩스, 포스코 등 14곳이다. 특히 정유·화학사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두드러졌다. GS칼텍스를 제외한 모든 정유사의 등급 전망은 하향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5월은 실적 발표와 함께 6월 회사채 정기평정 시즌 도래로 인한 신용등급 조정을 앞두는 시기다. 이에 이달에도 한계그룹과 항공, 유가관련 업종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위기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추락전사(Fallen Angel) 기업은 21곳이나 된다. 앞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간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33개사와 34개사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22개 한국 민간 비금융 기업 중 13개사가 신용 전망이 '부정적'(8일 기준)이거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특히 자동차 업체들은 수요 충격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올해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경기 변동성이 높은 정유, 화학, 철강 등의 업종에서도 여러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와 수요 충격으로 올해 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반기 정기평정에는 코로나19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신용등급이 부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하반기 정기평정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용평가사들이 현재 등급 하향이 아니라 전망 조정을 하고 있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등급 상향배수(등급 하향기업 대비 등급 상향기업)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주택과 도시에서 행복할 권리

주도권을 위해 HUG가 함께합니다

고민은 들어주고 걱정은 덜어주고!
당신의 주도권을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날까 걱정 안 해도 돼서 안심이에요"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당당해졌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낡은 건물이 새롭게 바뀌니까 동네에 활기가 생겼어요"

도시재생금융지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로나 방역 성공의 역설... '쓰레기 대란' 우려

마스크 등 의료폐기물 2월부터 쭉 종이컵 배출 감소세 4월부터 멈춰
택배·음식 포장용기 배출 급증
정부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 무색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9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증감수

총 환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1만1078명 (+13)	9938명 (+34)	877명 (-21)	263명 (0)

※ 출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목적의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면서 때아닌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립한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도 무색해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관에서 했던 차량 2부제가 상당 부분 완화했던 것이 있고, 일회용품 사용도 감염 예방과 관련해 또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일회용품 쓰레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3월 커피전문점 종이컵 수거량은 전년 동기보다 31.8% 급감했으나, 4월부터는 감소세가 사실상 멈췄다. 같은 기간 택배 물동량은 19.1% 급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1개 브랜드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회수·재활용을 위해 확인하고 있는데, 3월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둔화한 상태"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상 유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회용품 증가는 종이컵과 택배상자 등

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선 외식이 도시락, 배달음식으로 대체되면서 음식 포장용기 배출이 늘고 있다. 초·중·고교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학교에서도 당분간 급식이 간편식 등으로 대체돼 일회용품 배출이 늘 전망이다.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과 의료폐기물은 2월부터 급증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 지난달 15일에는 하루 동안 5800만여 장의 일회용품 비닐장갑이 사용됐다.

윤 총괄반장은 "아무래도 일회용품 사용량이 감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1만107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해외유입, 9명은 지역발생이다. 지역발생 중 7명은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로, 2명은 클럽 방문자이며 5명은 확진자의 접촉자다. 0시부터 12시까지 12명이 추가 확진돼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7명이 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데 더해 서울 의료기관에선 감염경로 불명의 집단감염도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접촉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들 확진자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스피 1980선 회복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3.50p(2.25%) 오른 1980.61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5.51p(0.80%) 오른 696.36으로, 원·달러 환율은 7.1원 내린 1225.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직장어린이집 4곳 중 1곳 '경영난' 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코로나19 여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요건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원 연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원 방안은 우선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여성 직장인의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현행 규정상 직장어린이집이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인건비·운영비 등)을 받으면 고용부 지원을 못 받는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이 고용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지원 방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제도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

를 지원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가 등을 많이 쓰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에 못 미쳐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진 직장어린이집이 최대 3개월분의 고용부 지원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한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달 8~14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678곳 중 161곳(23.7%)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 예산 감소(26.1%)'가 최대 애로점으로 꼽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아동이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곳도 171곳(25.2%)에 달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부산·광주·대전·창원·춘천에 '수소 추출시설'

수소차 5만대분 연료 생산
수소 공급 경제·안정성 확보

연간 수소 승용차 약 5만 대분의 수소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추출시설이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춘천시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 춘천시 등 3개 지역,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등 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수소경제 초기 정부 선제 투자를 통한 수소차·버스 등 수소 교통망 조성을 위해 수소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소추출시설은 액화천연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한 공급 시설로 수소 버스는 다량의 수소를 쓰기 때문에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수소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하루 약 1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버스 40대 분량이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버스충전소 연계 여부, 수소 공급가격 및 운영 계획, 주민 수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로 2개소를 더 선정, 올해 총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개소당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수소버스 150대 또는 수소 승용차 1만 대 분량에 달하는 하루 약 4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2020~21년 개소당 총사업의 40% 수준인

8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한국가스공사의 공모를 통해 △수소차·충전소 보급 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지자체 지원 △지역 수소산업 육성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약 7400톤의 수소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국내 수소 공급의 경제성·안정성이 대폭 증가하여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 모빌리티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수소차·버스의 확산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맞춰 수소추출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소승용차 누적 보급 목표는 올해 1만5158대에서 2022년 6만5000대, 2040년 275만 대다. 수소충전소 역시 올해 154개소에서 2022년 310개소, 2040년 1200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공정위, 한화 '일감 몰아주기' 제재 착수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제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감찰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공정위(심사관)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

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을 맡겨 일감과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한화그룹 계열사 6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 계열사의 소명을 듣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내년부터 수산업도 '공익직불제' 도입

경영이양 등 3가지 신규 추가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가 추가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65세 이상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선어업 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사용 등 이행할 경우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도를 총허용어획량과 연계하고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의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공익직불제도가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통합당 '윤미향 국조' 원구성 협상 카드로 쓰나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조 추진
과반 필요해 민주당 동의 필수
고민 커진 민주 부정기류 확산
검찰 '윤 당선인 의혹' 수사 착수

미래통합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판을 키울 계획이다.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윤미향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가 성사되면 2016년 11월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 이후 처음이다. 다만 당에서 "검토 중"이라며 한발 뺀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한국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통해 총선 참패 이후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주목된다.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 "자체적 TF가 아니라 한국당도 제안한 만큼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첫 단추라 생각해달라"며 한국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이날 "윤미향 의혹" 관련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통

합당과 TF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데엔 한국당 등 야권과의 공조로도 민주당의 동의 없인 국조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국조를 위해선 의석수 과반이 필요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당이 국조를 밀어붙이면 177석의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개원 전 원 구성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엄호에 치중해 '지켜보자'던 민주당 일각에서도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다 야당의 국조 압박은 당 차원에서 더는 침묵하게 할 순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미향 이슈가 개원 전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개혁 입법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윤 당선인 측의 해명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본 뒤 이르면 20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도 2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브리핑에 참석해 관련 의혹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 고가 매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국회 찾은 박용만 "새 경제질서 맞는 법 필요"

김태년 "민주당도 경제 지키기 절박"... 주호영 "상의 의견 경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대 국회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래의 변화가 빠르게 오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이에 맞춰 대화와 협치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의 틀을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박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워 급한 마음에 찾아뵙게 됐다"며 "경제 분야는 이전보다 훨씬 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급박한 경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제 관련된 처방, 대책들이 과거와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경제 질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해 경제 잡는 법과 제도, 그 운용의 틀을 다시 짜는 게 21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의) 말을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가 최근 한미 우호 증진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벤 플리트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대한상의가 한미 우호 관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박 회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경제 변화의 폭이 어디까지 갈지 머리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고 위기

감을 전했다.

그는 "비대면 산업이나 바이오,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이 훨씬 전개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도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어렵다"며 "예민한 시기에 법과 제도를 설치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경제를 지켜야 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인들 못지않은 절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 "내일 열리는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돌파할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경호처장 첫 내부 승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신임 처장이 대통령 경호실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 경호처장에 오른 내부 승진 사례라 격려 차원에서 임명식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국회의장 박병석 추대론 확산

김진표는 후반기 말을 듯

4·15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당 내에서는 최다선(6선) 박병석 의원을 합의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쟁 후보인 김진표 의원(5선)이 출마 의지를 굳힐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의장 경선은 6선의 박병석 의원 추대론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그간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해 활동해 왔다. 하지만 후보 등록 전 전격적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내상을 입고 잡음도 불거지는 게 불가

피하다는 점에서 단일화를 통한 추대 선출을 권유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상황에서 여당 최다선의 원들끼리 과도한 자리다툼을 벌이는 모양새 자체가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과 김 의원은 18일 회동을 갖고 후보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후보등록을 일단 보류한 것도 단일화를 위한 시간을 하루 더 벌기 위한 차원이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하고, 김 의원은 후반기에 추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등록도 진행된다. 부의장 경선 후보로는 김상희 의원(4선) 외에 이상민·변재일·설훈·안민석(5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유종현 기자 lamuziq@

“월급 올린긴 힘들어도, 세금 깎는 건 쉽죠!”

절세의 프로 신대리

부양가족도 없지만

매년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받는 신대리, 비결이 뭘까?

절세의 프로가 되는 법, 신한금융투자 IRP

세액공제 **최대 115.5만원** | 저율과세 **5.5%~3.3%** | 퇴직연금전용상품 **1588-1122**

www.shinhaninvest.com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이 퇴직연금(IRP)은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982호(2020-04-27~2021-0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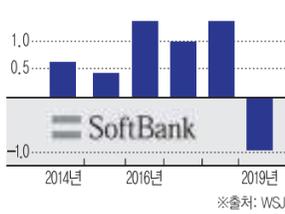
위기의 손정의



돈 되는 건 다 판다

알리바바 지분 매각 14조 확보
T-모바일 주식 24조 매각 추진
이통 자회사 매각도 검토

소프트뱅크그룹 연간 순이익 추이
(단위: 조 엔)



비전펀드 주요 투자처 현황
(단위: 달러) ※ 5월 15일 기준



기업 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생존이 불투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손 회장이 매물로 내놓은 또 다른 핵심 자산은 바로 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 주식이다. 소프트뱅크는 T-모바일 지분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T-모바일 주식 200억 달러(약 24조5260억 원) 어치를 매각하기 위해 구매자를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T-모바일 지배주인 도이체텔레콤은 지분을 현재의 약 44%에서 50% 이상까지 높일 수 있도록 소프트뱅크 보유 주식을 매입할 권리가 부여된다. 한 소식통은 소프트뱅크가 다른 투자자에게도 T-모바일 주식을 매각해 지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주에 '딜(Deal)'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나 T-모바일 모두 손 회장의 투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손 회장은 미래가 불투명한 스타트업

이었던 알리바바에 2000년 20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14년 후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손 회장이 투자한 돈은 600억 달러로 불어나게 됐다. 알리바바 투자에서 얻은 자신감이 1000억 달러 규모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출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공교롭게도 이날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가 6월 25일부로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자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개방적이고 세계화된 기술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손 회장은 2012년 미국 이동사 스프린트를 인수, 이를 T-모바일과 합병시켜 버라이즌과 AT&T의 아성에 도전하려 했다. 지난달에는 합병이 마무리돼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주식 대부분을 정리하게 됐다.

이외에도 소프트뱅크는 캐시카우인 일본 이동통신 자회사 소프트뱅크코퍼레이션 지분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예수도 오해받았다” 구차한 변명

“투자 성과 나면 재평가” 강조

답했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실적으로 체면을 구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이 자신의 처지를 예수 그리스도 등에 비유하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진행된 콘퍼런스 콜에서 “예수도 오해 받고, 비난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전펀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과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소프트뱅크가 역대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투자 성과가 나타나면 자신의 평판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예수에 빗댄 것이다.

손 회장이 자신의 투자 전략을 변호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는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를 거론하면서, “비틀스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인기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콘퍼런스 콜에 참여했던 사람은 FT에 “손 회장은 자신이 언론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소프트뱅크에 대한 대중의 시선과 자신의 비전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손 회장은 과거에도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주인공의 스승인 ‘오다’의 말을 인용해 “힘을 느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영화에서 오다는 제다이 기사들에게 ‘포스(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느끼라”고 가르쳤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투자 기회라는 느낌이 왔을 때 베팅하는 자신의 방식을 믿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손 회장이 직감을 통해 여러 차례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날 소프트뱅크는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적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9615억 엔(약 10조 9805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3월 적자는 1조4381억 엔으로,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배로 불어났다. 분기 적자액으로는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손 회장의 예수 비유에 관련 기사 댓글에는 “그렇다면 못을 박아야 한다”, “예수는 빵 몇 덩어리와 물고기 몇 마리로 군중을 먹여 살렸는데, 손 회장은 1년 새 13억 달러를 잃는 기적을 행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변호선 기자 hsb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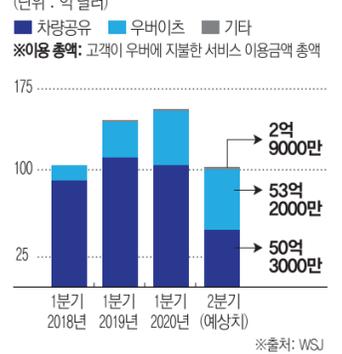
불안한 밤... 中 원난성 규모 5.0 지진 관측됐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밤 중국 원난성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들이 야외에서 불안한 잠을 청하고 있는 주민들을 돌아보고 있다. 18일 오후 9시 47분경 원난성 자오퉁시 차오자현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차오자현/AFP연합뉴스

우버 ‘배차’ 버리고 ‘배달’ 시동

감원 발표 2주 새 또 구조조정
자사 음식배달 ‘우버이즈’ 호조
경쟁사 ‘그럽허브’ 인수에 사활

우버 이용 총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궁지에 몰린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테크놀로지 자사 음식배달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다. 3700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2주도 채 안돼 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핵심을 배차서비스에서 음식배달로 급하게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사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 3000명을 추가로 해고하고 전 세계에서 사무실 45곳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버는 최근 1개월 새 전 세계에서 직원의 약 25%를 줄이게 되는 셈인데, 이는 우버가 자사 음식배달 서비스 ‘우버이즈’의 경쟁사인 ‘그럽허브’ 인수를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우버는 거액의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투입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우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즈 사업이 호조를 보이자 이 부문을 적극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우버에 따르면 4월 배차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80% 감소로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 1분기 우버이

츠 이용 총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우버는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경쟁사 그럽허브와의 통합을 추진해왔다. 그럽허브와의 통합에 성공하면 업계의 지속 불가능한 경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우버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배차서비스 이용객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버에겐 절실한 목표다. 시장조사업체 에디슨트렌드는 우버와 그럽허브가 통합하면 우버이즈는 현재 미국 내 업계 1위인 도어대시를 제치고 단번에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양사 통합은 그럽허브 측이 인수가 예상보다 높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규제도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 많은 도시들은 우버이즈 같은 배달업체가 레스토랑 측에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에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증시로 번진 美·中 갈등... 나스닥, 상장 문턱 높인다

외국기업 IPO 요건 강화 추진
中, 자국기업에 英 런던 상장 독려

의 1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나스닥이 IPO 규모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스닥이 특별히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아주 작은 규모로 IPO를 실시하거나 소수 내부자가 보유한 지분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식을 상장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중소기업들은 뉴욕증시 상장을 선호해왔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미국 달러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다. 또 나스닥 상장사가 되면 중국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수월하고, 무역 당국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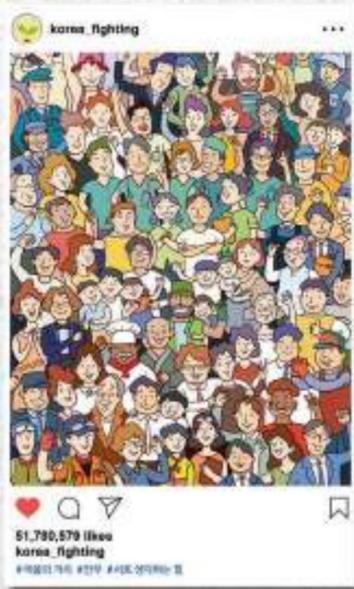
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하고도 미국 회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아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영국 런던증시 상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출범한상하이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의 교차 거래 체제인 ‘후룬통’을 통해 중국 기업의 런던증시 상장을 촉진, IPO 시장에서 미국 비중을 줄이고 영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중국 정부는 후룬통을 통해 자국 기업의 투자자 기반이 확대하고 본토 투자자들이 영국 상장사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런던증시에 상장한 중국 업체는 화타이증권 한 곳밖에 없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나스닥거래소는 19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의 상장 문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업공개(IPO) 규정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나스닥이 미국 증권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IPO 시 최소 2500만 달러(약 306억 원)나 시가총액의 4분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프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가족이 걸리면 어찌죠?”

하루 2만여 건의 상담전화 중 대부분은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걱정하는 전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마음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SK하이닉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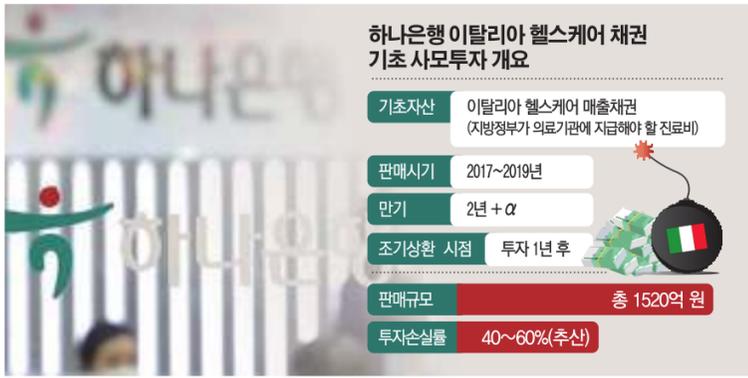
투자자 “실사보고서 공개”

‘이헬스케어펀드’ 집단소송 본격화

“법적으로 불가능” 하니銀

장기채권 편입·상환 지연 등 투자자, 불안전판매 의혹 제기

선제적 배상 거부당한 하니銀 “투자자에 자료 제공한 적 없어”



하니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불안전판매 의혹에 휘말리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하니은행 측이 요약해 제공한 회계법인 실사 자료에서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유를 소송을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리해 소송 중이기도 하다. 하니은행 측은 일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편

드 손실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자들은 전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점, 회계법인 실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니은행 측이 투자자들에게 요약해 제공한 삼일회계법인 실사 자료에 따르면 부실의 원인은 △장기채권의 편입 △고가매입이슈 △상환스케줄지연 등으로 압축된

다. 투자자 A씨는 장기채권의 편입에 대해 “상품제안서에는 ‘예산 내에 속하는 채권 위주로 구성하여 유동성/안정성 강화’라고 안내돼 있다”며 “예산 내 채권의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편입돼 얼마의 손실이 났다는 말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가매입 이슈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니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헬스케어 펀드 상품제안서에 따르면 의료비 매출채권의 경우 사설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할인해서 매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하니은행 측에서 요약한 회계법인 실사 자료에는 부실의 원인이 되는 장기채권을 시장할인율(15~25%)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상황(평균 7~8% 할인을 적용)으로 파악됐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했다. 또 다른 부실 원인인 상환스케줄 지연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의료채권의 경우 상환 기간은 2019년 1월 기준 평균 114일이다. 하지만 실사 요약 결과에서 손실 원인으로 파악된 장기채권의 예상 상환 만기는 2025~2026년으로 명시됐다.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해 명확한 부실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니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 산하 지역보건관리기구(ASL)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유통화한 채

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운용사들은 병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지방정부에서 상환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펀드를 만들고 신한금융투자가 JB자산운용 등 국내 6개 자산운용사에 총수익스왑프(TRS) 계약 형태로 넘겼다. 운용사들은 하니은행 프라이빗뱅크(PB) 센터를 통해 2017년부터 2년여간 이 상품을 사모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 기대 수익률은 연 5~6% 수준이었다. 하니은행에서 팔린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현지 펀드 실사 결과 손실률은 약 40~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니은행은 실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선제적 배상 안을 제시했으나 투자자들은 배상 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니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 실사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신한카드가 뽑은 미래 소비트렌드 ‘S·H·O·C·K’

온라인·디지털·비대면 확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키워드 제시

신한카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로 ‘S·H·O·C·K’(쇼크)를 제시했다. 신한카드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소비의 방식과 유형, 대상 등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5가지 키워드로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5가지 키워드는 △온라인(Switching On-line) △홈라이프(Home-life sourcing) △건강·위생(On-going health) △패턴 변화(Changing pattern) △디

지탈 경험(Knowing digital) 등이다. 먼저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온라인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유통업종에서 3월 온라인 소비의 비중은 65%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1월과 비교했을 때 7%포인트(P) 증가했다. 또 공연·영화 업종 중에서 ‘OTT 서비스’ 이용은 20%나 늘었다. 홈라이프는 최근 감염병 우려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주거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자제와 재택근무 확대,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 등으로 인해 제과 업종과 같은 생활 밀착업종을 중심으로 시정, 여의도 등 오피스 지역 이용률은 최대 34% 감소하고, 주거 지역 이용률은 최대 12%까지 증가했다.

건강·위생 관련 소비가 확산된 것도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다. 의류 관리기, 건조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위생·클린 가전 판매를 분석해 본 결과 신한카드 이용금액 기준 3월 이용금액이 직전 3개월(2019년 12월~2020년 2월) 평균 이용금액보다 건조기는 42%, 공기청정기는 21% 증가했다. 특히 의류 관리기 판매는 267% 늘어났다. 기존에 고정돼 있던 소비의 시간·연령·구매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며 특정 업종에서 주말 소비가 집중되던 양상에서 벗어나 요일 구분 없는 형태를 띠기도 하고, 2030세대 중심으로 이용되던 서비스가 4060세대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삼성카드, 365일 제휴사 혜택 ‘우수수’

‘24365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삼성카드가 5월 가정의 달에 요일마다 CU, 엔제리너스, 던킨 등 제휴사와 함께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부터 ‘숫자카드 네번째 시리즈(V4)’ 출시 기념 ‘24시간 365일 삼성카드와 함께하는 생활’의 의미로 제휴사들과 ‘24365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엔제리너스’에서는 5월 매주 월요일에 삼성카드 ‘24365 올데이 세트’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38% 현장할인을 제공한다. 또 행사 상품 구매시 ‘24365 리유저블컵’을 선착순으로 소진시까지 받을 수 있다. 5월 매주 목요일 ‘던킨’ 행사 대상점에서 삼성카드 ‘24365 도넛팩’ 행사 상품 구매시 ‘페이머스 글레이즈드팩(6개입)’

을 추가로 증정한다. 5월 매주 금요일에는 ‘CU’ 행사 대상점에서 삼성카드 국내 수제 맥주 8캔 이상을 구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삼성카드가 국내 수제맥주 제조사인 ‘플래티넘맥주’와 함께 디자인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한정판 맥주 ‘퇴근길 24365 에디션’도 CU에서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 뷰티 편집샵 시코르에서는 28일까지 ‘24365 뷰티UP 세트’ 5종을 삼성카드 결제시 20% 할인과 함께 ‘24365 친환경 미니백’을 선착순으로 소진시까지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일상에서 삼성카드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24365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내 PC 원격접속</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채팅&메신저(WE톡)</p> <p>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메신저입니다.</p>	<p>화상회의</p> <p>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문자서비스</p> <p>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p>			
<p>팩스</p> <p>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메일(1G)</p> <p>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전자결재</p> <p>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요청이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웹오피스</p> <p>한국, 역설,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WE드라이브(10G)</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p>	<p>일정관리</p> <p>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p>	<p>할일관리</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p>	<p>기본정보관리</p> <p>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명주기 관리,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 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p>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年 7900원에 암 보장... 가성비 갑 '미니보험' 열풍

일반보험과 다르게 특약 미포함 수술·입원비 대신 진단금만 지원 만기·중도해지 환급금은 없어 단기 보험 원하는 젊은층에 인기

커피 한 잔 값으로 보험 보장이 가능한 '미니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보험은 보장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끼 상품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보험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일반보험과 다르게 특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령 암보험의 경우 수술비나 입원비 대신 진단금만 지원하는 식이다. 또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 할 경우에 돌려받는 금액도 없다. 보장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의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사	보험료	보장내용
삼성생명	'미니 암보험' 연 7900원	위암·폐암·간암 3개암 보장 최대 1000만 원 보장
캐롯손해보험	'캐롯 990 운전자보험' 월 990원	연령·성별 무관 가입 가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 3000만 원까지 보장
KB손해보험	'KB다이렉트 T-map 라이프 온전자보험' 월 5000원	여행·레저, 스콜존 사고까지 3000만 원 한도 보장
한화생명	'여성건강보험' 월 3800원	2040세대 여성 질병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보장
미래에셋생명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 월 1000원	여성 3대 암 최대 500만 원 보장
오렌지라이프	'무배당 오렌지 빼팩트 상해보험 미니' 5000원 1회 납입	20~50세 대상 1년간 상해 보장

미니보험 특징

- ✓ 핵심 담보 위주로 보장 (특약 없음)
- ✓ 해지 환급금 없음
- ✓ 온라인/모바일 가입 가능
- ✓ 단기간 보장
- ✓ 필요시에만 쓸 수 있음

고 월 3800원으로 2040세대 여성의 주요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미니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상품은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20~49세 여성으로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주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도 소액으로 여성 3대암(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생식기암)을 보장하는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은 20세부터 50세까지로 확장됐다. 월 1000원의 보험료로 꼭 필요한 여성 3대암을 꼭 잡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핀테크 회사인뱅크샐러드는 뼈 질환을 보장하는 오렌지라이프 '무배당 오렌지 빼팩트 상해보험 미니'를 판매하고 있다. 20~50세에 해당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보험료 5000원만 1회 납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곽찬산 기자 jinsan@

다. 보험의 핵심 기능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수요가 높다.

삼성생명이 출시한 연 보험료 7900원의 미니 암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암 진단에 대해서만 보장을 한정해 보험료를 낮췄다. 상품은 1종과 2종으로 구성됐으며 1종은 소액암으로 분류된 전립선암과 유방암, 자궁암을 보장해 최대 보장금액이 500만 원이다. 2종은 발병률이 높은 위암·

폐암·간암 등 3개 암만 보장하는 대신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운전자보험에는 월 보험료가 천 원도 하지 않는 상품이 있다. 캐롯손해보험의 '캐롯 990 운전자보험'은 월 보험료가 990원이다. 누구나 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서 필요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 원), 변호사 비용(500만 원), 벌금(2000만 원), 교통 상해

사망보험금(3000만 원)까지 핵심 담보 위주로 보장된다.

비슷하게 KB손해보험은 최근 월 5000원으로 여행·레저 보장 등을 비롯해 스콜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까지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KB다이렉트 T-map 라이프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월 생명보험사 중 처음으로 금융 플랫폼 토스와 업무 제휴를 맺

연회비 적고 혜택은 '풍성'... 고객 취향 저격 신용카드는?

스타벅스·영화 50% 할인 등 롯데 '라이켓편' 1분기 인기 1위

전월 실적 상관없이 무조건 적립 신한 '딥드림' 2위에 올라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 등 언택트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연회비 부담이 낮고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할인·적립 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연회비가 낮거나 전월실적이나 적립·할인한도

가 필요 없고,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인기를 얻었다.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혜택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게 카드사들의 전략이다. 신용카드 전문사이트 카드고릴라가 올 1분기 상품조회수와 신청전환수를 집계한 '2020 인기 신용카드 톱 10'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카드는 커피전문점·대중교통·영화 할인 혜택이 담긴 롯데카드의 '라이켓편'이었다. 라이켓편은 연회비 1만 원에 스타벅스 50%, 영화 50%, 대중교통 20%가 할인된다. 전월실적과 한도제한 없이 무조건 적립되는 신한카드 '딥드림'은 2위를 차지했다.

3위에 오른 KB국민카드 '탄탄대로 미즈앤미스터(Miz&Mr) 티타늄카드'는 대중교통, 마트, 커피, 백화점, 주유 등 일상생활 업종뿐만 아니라 SPA패션, 마켓컬리·배달의민족, 이케이·무지 등 트렌디 업종들이 포함돼 있다. 커피와 소풍할인에 집중한 삼성카드 '탭탭'은 4위를 차지했다. 커스터마이징 카드로 커피 30~50% 할인, 소풍 최대 7% 할인을 제공하는 7개의 옵션 패키지를 매달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5위와 6위는 전월실적과 한도제한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 카드가 차지했다. 5위는 우리카드 'DA@카드의 정석'으로 모든 이용금액 기본 0.8%, 생

활업종은 1.3% 할인되며 국내 공항 라운지가 연 2회 무료다. 6위는 현대카드 'ZERO(할인형)'으로 모든 이용금액 기본 0.7%, 생활필수영역은 0.5% 추가 할인된다. 지난달 삼성카드는 카카오펀드와 손잡고 연회비 7000원에 전월 실적 조건과 할인 한도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전월 실적에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0.5%의 할인 혜택을 할인 한도 없이 제공한다. 할인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생활필수 업종에서는 1%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연회비가 낮거나

2020년 1분기 인기 신용카드 TOP10

- 1 LIKIT FUN 카드 롯데카드
- 2 신한카드 Deep Dream 신한카드
- 3 탄탄대로 Miz&Mr 티타늄카드 KB국민카드
- 4 삼성카드 taptap O 삼성카드
- 5 DA@카드의 정석 우리카드
- 6 현대카드 ZERO(할인형) 현대카드
- 7 NH올원 파이카드 NH농협카드
- 8 청춘대로 톡톡카드 KB국민카드
- 9 신한카드 Mr. Life 신한카드
- 10 삼성카드&MILEAGE PLATINUM(스카이패스) 삼성카드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혜택을 지닌 카드들,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주는 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COVERSTORY 바이러스의 진실

PART1. 코로나19로 물든 봄에 드리고 싶은 말씀
PART2. 바이러스를 불러낸 19가지 궁금증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PART4. 바이러스 퇴치 면역력이 답이다
PART5. 허구가 만들어진 '제2의 바이러스'

다들어 숲
눈앞길에
다들어 숲
눈앞길에

고수열전
살을 통째로 긍정 못하게 없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며, 그 어떤 권능에도 휘둘리거나 호리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며,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쉽지가 않다. 예사 소품이 꼬이고 뒤엉켜 좁은 세계에 갇히는 게 사름이다. 신의 이름은 강렬히 불려 우언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채는 게 사름이다. 도들이표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나는 누구인가?

신라산가 만남 사랑



높은 소년
가수 이경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우리 노래의 길을 잇는
국악인 김경림
대한민국 단 해·외 소리로
거둔다기 위한 여정



주연리제
실과 스토리를 새겨 넣다
해와에서 더 빛나는
보석 디자이너 김영희

김혜영의 느린 여행
목호중대마을의 추억 앨범 '눈골담길'
시집 '목호를 읽고 목걸리를 안 마실 수 없다'는 신혜영의 SNS 글을 보고, 7여 년 속 목호를 떠올렸다. 목호중대마을의 비좁고 기차편 골목 골에서 마주했던 김부은 배다. 슬레이트집 담벼락에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목호중대 특집 인박집에서 청문으로 감상했던 목호의 방 풍경들. 유난히 목호에 끌리는 건, 왜일까. 좋은 건 이유가 없다니 목호가 그랬다.

생생 부동산 현장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자통팔달'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운동이 불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시니어 반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영양 만점 달걀로 채운
볼스푼 도시락

투자 고수와 놀자
김혜영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
노후 자산관리
"넓게 보고, 깊게 가라"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SK케미칼 ‘中 친환경 소재 공장’ 확장 이전

한국타이어 판매법인 설립 국내 시장 ‘1위 탈환’ 시동

‘그린 케미칼’ 역량 강화
환경호르몬 없는 코팅재 수요 ↑
한국과 접근성 좋은 산동성으로
기존 장쑤성 공장 정리 2년 예상

SK케미칼이 중국 내 친환경 소재 공장의 이전을 추진한다. 바이오에너지 사업부 매각 이후 친환경 소재의 생산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9일 SK케미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장쑤성 우지양시에서 위치한 접착제용 폴리에스터 수지 ‘스카이본(SKYBON)’ 생산공장 ‘SK화공수저유유한공사’를 매각하고 공장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본은 고분자량 폴리에스터 수지로, 유연성과 탁월한 접착력으로 코일 코팅, 캔 코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

며,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적 특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프린터 및 고속 복사기의 토너용 바인더와 각종 고기능 잉크용 바인더 등 이미징 재료(Imaging materials)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SK케미칼이 이전을 결정한 화공수저유유한공사는 지난 2005년 총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된 곳이다.

중국의 대형 도료업체와 정보기술(IT) 관련 부품기업 등에 스카이본을 생산해 납품하는 이 공장은 SK케미칼의 현지 생산법인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는 곳이기도 하다.

SK케미칼은 스카이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공장이 위치한 우지양시의 개발로 공장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시작되고 부지 가격이 오르며 공장 확장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공장 부지로는 산동성 엔타이시가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중심인 엔타이시는 최근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치하는 등 국제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중산업단지를 조성하며 한국 기업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K케미칼이 공장을 이전한다면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엔타이시가 기존 공장이 위치한 우지양시보다 한국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새로운 공장 부지로 선정된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생산법인은 중국 현지 회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공장 양도와 신공장 건설 등을 거쳐 공정 이전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케미칼은 공장 이전으로 스카이본의

생산을 확대해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토너용 수지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의 매출 확대와 다국적 회사와 협력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회사 전반의 친환경 소재 경쟁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케미칼은 올초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친환경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그린케미칼 비즈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용 소재 수출을 확대하며 그린 케미칼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지난달 안면보호대, 투명 방역창 등 개인보호장비에 사용되는 방역용 투명소재 ‘스카이그린(PETG)’의 공급을 전년 동월 대비 2배 규모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전문 판매법인을 설립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대해 금호타이어에 빼앗긴 내수 교체용 타이어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신규 법인 설립과 관련해 “당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운데 하나인 타이어 전문점 ‘T 스테이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가맹사업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전문 판매법인은 ‘T&A(티앤에이) 주식회사’다. 한국타이어가 지분 100% 보유한, 자본금 약 26억원 규모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다.

현재 금호·한국·넥센 등 국내 타이어 3사는 내수시장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한국타이어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판매망 T 스테이션은 약 500곳으로, 이 가운데 10여 곳이 한국타이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다.

이처럼 제조사가 별도의 판매법인을 추진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다. 타이어 제조사는 개발과 제조에 집중하고, 판매사는 전문성을 앞세워 네트워크 확장과 판매·서비스 효율성에 집중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 역시 신규 설립한 판매 전문 법인을 앞세워 직영점 운영과 효율적인 판매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확장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타이어가 국내에 타이어 전문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금호타이어에 빼앗긴 내수 교체용(RE) 타이어 시장 1위를 되찾기 위해서다. 해외생산과 현지판매에 집중해온 탓에 내수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에 1위를 내줬다. 김준형 기자 junior@

中 산시성 서기 만난 이재용 “협력 확대하자”

후허핑 “삼성 프로젝트에 전력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언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에서 지방정부 관계자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업계와 현지 산시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후허핑(胡和平) 산시성 위원회 서기와 류귀중(劉國中) 성장 등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후허핑 서기는 이 자리에서 삼성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지역 주민들에게 방역 물자를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후 서기는 최근 성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뜻을 반영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재가를 보다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성은 삼성과의 우정이 깊어지길 원한다”며 “성내 삼성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언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방정부의 방역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삼성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 영역을 넓히고 교류를 늘리자”며 “산시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17일 중국으로 출국한 이 부회장은 18일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

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글로벌 기업인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사흘간의 중국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부회장과 동행했던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박학규 DS 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황득규 중국 삼성 사장 등도 함께 들어왔다.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기업인 신속통로 합의에 따라 출입국한 경우에는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송영록 기자 sy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4% 부부

CJ대한통운은 부부의 날(21일)을 맞아 배송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택배기사들의 13.6%인 1225쌍(2450명)이 부부 택배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전국 1만8000명 중 가족 단위 택배기사는 총 3498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 중 부부 비중은 70%로 지난해 1155쌍 대비 70쌍 증가(6%)했다.

부부 외 부모자녀 관계 367명(10.5%), 형제·남매 426명(12.2%), 기타 친인척 포함 가족 255명(7.3%)으로 분석됐다.

작업형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일 구역을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동행 배송 형태는 2042명(58.4%)으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구역을 전담하는 각자 배송 형태는 1369명(39.1%)으로 나타났다. 영업 관리 및 거래처 출고 물량을 확보하는 집화 전담 형태, 물량이 가장 많은 화요일만 분담하거나 분류도움미 등 기타 방식은 87명(2.5%)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자동화 설비 등 기술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과 수입이 높아짐과 동시에 배송량, 작업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산인프라코어의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클라우드’는 건설현장 무인·자동화 종합관리 솔루션 ‘컨셉트-X’ 상용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시공측량 하루에 끝낸다

스마트 건설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 기반 3차원 드론 측량
무인자동화 관제 첫단계 상용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클라우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트클라우드는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 최초로 시연에 성공한 건설현장

무인·자동화 종합관리 솔루션 ‘컨셉트-X(Concept-X)’의 상용화 첫 단계다.

사이트클라우드는 3차원 드론 측량과 토공 물량 계산, 시공 계획 수립 등을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에 집중해 최적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현장 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토공 현장 종합 관리 솔루션이다. 측량, 지형 분석, 장비 운용 등 각각 분산된 여러 작업을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줄고, 작업 정확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솔루션을 활용하면 토공현장 정보를 3차원으로 디지털화하고 암층 분석까지 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발주처 등 공사 참여 주체 간 협업을 통한 작업 진도 관리가 용이하다. 특히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해 2주기량 걸린 시공 측량, 토공량 계산이 1~2일이면 가능해진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포스코인터, 강소 부품사 지원 수은과 ‘상생 플랫폼’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 부품사 지원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은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신(新) 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차원이다. 3사가 플랫폼을 통해 자체 해외 기반이 약한 국내 강소 부품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돕고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부품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과 현지화 사업에 힘을 보태고, 필요하면 공동투자도 할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장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이 요구하는 현지에서의 후공정, 조립 등 현지화 사업을 지원한다. 부품사들은 코로나19로 수출이 대부분 막힌 상태다. 공장 가동률도 떨어져 판매와 운영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존 거래 업체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강소 부품사를 대상으로도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3사 공동으로 지방 각지를 돌며 플랫폼에 대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 희망, 우리가 선물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중소기업 취업청년 가구의 전세안심대출보증은 최대100%) / 단, 일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최대70%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신혼가구	2재녀 이상가구	일반가구
최대 1억원 연 1.2% 금리	최대 2억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1% 금리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4% 금리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9% 금리

2020 새봄맞이 버팀목전세대출

경품 EVENT

이벤트 기간 : 2020.03.02(월) ~ 05.29(금)

- 참여방법 : 기간 중 버팀목전세대출 실행고객 (자동응모)
- 경품 : 삼성TV 65인치 (1명) / 삼성 에어드레서 (3명) / 애플워치5 (5명) / 휴스툼 무선 물걸레청소기 (11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000명)
- 당첨자발표 : 6월 중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

▶ 상기내용은 2020. 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 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중 대출받고 2020년 5월 29일까지 대출계좌 유지 고객에 한하며 마케팅 미동의 및 SMS 수신 거절시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은 우리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자택주소지 및 휴대폰 번호로 배송되며, 연락처 정보 오류 등으로 반송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등록된 고객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당첨 고객에 한해 고객정보가 업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경품 발송 이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99-0800,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압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03.13 준법감시인-0599 심의필 (유효기간 : 2021.3.31)

볼 때마다 色 다른 LG 벨벳



비결은 나노 기술



LG 디자이너 '테크 세미나'
머리카락 100분의 1 패턴 넣고
수백층 나노 물질 쌓아 마감
기존 스마트폰 가공시간의 10배

“LG 벨벳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보편성을 잃지 않는 디자인 원칙을 지킨 제품입니다.”

LG전자는 19일 온라인 테크 세미나를 열고 매스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벨벳'의 디자인과 후면 컬러 공법을 소개했다. 벨벳 디자인 주역들은 차별점으로 '광학 패턴'과 '나노 적층' 기술을 꼽았다.

김영호 LG전자 MCD디자인연구소 전문위원은 “벨벳 디자인을 처음 본 고객 대부분은 매끈하고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에 한 번, 오묘한 색상에 두 번 놀란다. 벨벳은 같은 색상의 제품이라도 보는 각도, 빛의 양, 조명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상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오묘한 벨벳 컬러의 비밀은 바로 '광학 패턴'과 '나노 적층' 기술이다. LG

전자는 벨벳의 후면 글라스 아래에 머리카락 두께의 100분의 1 수준인 1 μ m(마이크로미터) 이하 간격으로 패턴을 넣고, 나노 물질 수백 층을 쌓아 올린 나노 적층 필름을 붙여 매력적인 색상을 완성했다.

김문영 LG전자 생산기술원 제품품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벨벳의 후면에 적용된 광학 패턴은 LG전자 생산기술원이 독자 설계했다. 생산기술원은 벨벳의 4가지 색상마다 맞춤형 패턴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공정은 정밀하게 패턴을 새겨야 하므로 과정이 까다롭다. 가공시간도 이전 제품 대비 10배 이상 소요된다.

벨벳의 4가지 색상 중 가장 다채로운 색상을 보이는 것은 단연 ‘일루전 선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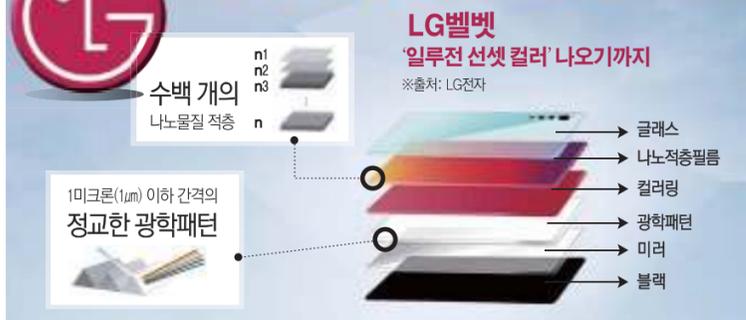
최보라 MCD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컬러와 트렌드 컬러를 선정해 선택 폭을 넓혔다”며 “일루전 선셋에 나노 적층 기술로 만들어진 특수필름을 적용해 이 같은 오묘한 색상을 구현해 냈다”고 강조했다.

벨벳은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

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처음으로 적용한 데다, 후면 커버도 동일한 각도로 구부러 하단에서 보면 가로로 긴 타원형 모양이다. 타원형이기 때문에 손과 밀착되는 접촉면이 넓어져 착 감기는 ‘손맛’을 제공한다. LG전자는 이 제품에 4가지의 곡률(흰 정도)을 적용했다. 제품의 양 끝에서부터 6.5R, 10R, 15R, 18R 순서다. 스마트폰 중심부와 가까워질수록 점차 완만해지는 곡률은 손에 착 감기는 디자인을 완성케 한다.

벨벳은 제품의 테두리에 메탈 재질을 적용,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각 모서리에는 완만한 뿔(Horn) 형태의 디자인으로 안전감과 균형 잡힌 디자인을 완성했다. 유승훈 MCD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D 아크 디자인은 옛 디자인이 가지는 미학적인 가치는 최대한 살리고, 불편한 오작동, 화면 왜곡은 곡률을 다르게 적용해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벨벳은 지난 15일 이동통신 3사와 오픈마켓, LG 베스트샵,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자급제 채널을 통해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 벨벳’은 나노 필름을 활용해 각도에 따라 다른 색상을 구현했다. 디자인에 참여한 최보라(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책임연구원, 유승훈 책임연구원, 도기훈 책임연구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문영 책임연구원.

롯데칠성음료



- 1970년 완행열차 카트 속에
- 1988년 동네 돼지갈비집에
- 1998년 소녀시절 소풍날에
- 2002년 외할머니댁 화채 속에

청량한 기억이 있는
모든 순간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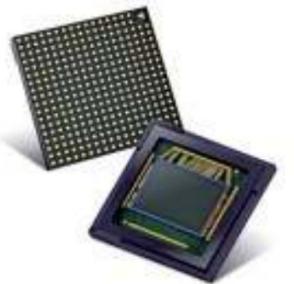


진짜사이다는 그곳에 칠성사이다 7th Anniversary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확보

폰카, DSLR 넘보다

삼성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GN1’
모바일서 초고속 자동초점 지원
픽셀 하나에 ‘포토 다이오드 2개’
5000만 화소로 1억 화소급 구현



삼성전자가 DSLR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이미지센서를 선보이며,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초격차를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1.2 μ m(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기반의 50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GN1’<사진>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GN1’에 최초로 하나의 화소(Pixel)에 두 개의 포토 다이오드를 배치하는 ‘듀얼 픽셀(Dual Pixel)’ 기술과 4개의 인접 픽셀을 하나로 묶는 ‘테트라셀(Tetracell)’ 기술을 동시에 적용했다.

‘아이소셀 GN1’은 DSLR 수준의 업계 최고 ‘위상검출자동초점(Phase Detection Auto-Focus, PDAF)’ 성능을 제공한다. 사람이 양쪽 눈을 이용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 제품은 각 화소에 좌우로 위치한 두 개의 포토 다이오드에서 검출된 이미지의 위상차를 계산해 피사체에 정확하고 빠르게 초점을 맞춘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와 같이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때도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각 화소에 두 개의 포토 다이오드가 있

어 5000만 화소의 경우, 1억 개의 포토 다이오드가 받아들이는 빛을 이용해 1억 화소 수준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이 제품은 1.2 μ m의 비교적 큰 픽셀 면적으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4개의 픽셀을 하나로 결합하는 테트라셀 기술로 감도를 4배 높여 1250만 화소의 밝고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빛에 따라 자동으로 ISO 값을 조정하는 ‘Smart-ISO’, 이미지 촬영 시 밝기와 명암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실시간 HDR’, ‘전자식 이미지 흔들림 보정(EIS)’ 등의 최신 이미지센서 기술도 함께 탑재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센서사업팀 박용인 부사장은 “아이소셀 GN1은 강화된 자동초점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지속적인 픽셀 기술 혁신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차세대 고성능·다기능 이미지센서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아이소셀 GN1’을 양산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제주항공 27일부터 초특가 예매 국내선 9000원·동남아 4만원대

제주항공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초특가 항공권 할인행사인 ‘짹(JJIM) 항공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제주항공의 우수고객인 VIP, 골드, 실버플러스 회원과 유료멤버십인 J PASS 구매 고객은 우선 예매 혜택을 준다. 프로모션 행사 하루 전인 26일 오후 3시부터 짹 항공권 예매를 할 수 있다.

짹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만 가능하다.

짹 항공권 최저운임은 편도 총액운임 기준 국내선 9000원, 일본 3만6000원, 중화권 3만8000원, 동남아 4만8000원, 대양주 4만6800원, 러시아 4만57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유류할증료와 해외 공항시설사용료는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농기계 온라인 판매 시대 열겠다” 대동공업, 오픈마켓 입점 속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입점 전망
원유현 신임 사장 IT 강화 의지
농기계 자율주행 4개년 계획도



지에서 결제는 불가능하다. 게재된 제품 옆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고객이 구매 문의를 남길 수 있고, 구매 상담까지만 연결된다.

국내 1위 농기계 업체 대동공업이 쿠팡, 옥션 등과 같은 오픈마켓 입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원유현 사장의 의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린 결과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동공업은 올해 초부터 온라인으로 제품 판매하는 방향을 고민해 왔다. 그 결과 국내 한 대형할인점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논의가 최근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갔으나 끝내 불발됐다.

대동공업 관계자는 “여타 온라인 채널과 논의해 빠르면 올해 초부터 대동공업의 농기계 부품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동공업이 농기계의 온라인 판매를 현실화하면 이는 최초 사례다. 국제종합기계가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쇼룸’ 탭을 마련하긴 했지만, 홈페이지

농기계의 온라인 판매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트랙터, 이앙기 같은 제품이 몇백 만원은 훌쩍 넘는 고가인 제품이어서다. 최고가 제품은 1억5000만 원까지 호가한다. 이 때문에 농기계는 대리점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동공업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단가가 낮은 농기계 부품부터 판매를 시작한 뒤 반응을 보면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동공업이 유통 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의 중요도가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올해 1월 승진, 임명된 KT 출신 원유현(사진) 사장의 의지도 작용했다. 원 사장은 삼성물산과 KTF를 거쳐 KT 경영전략실 부장,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를 역임한 인물이다. 대동

공업 관계자는 “원 사장 취임 이후 전산 작업의 고도화를 비롯해 IT 부분에 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사장은 농기계 자율주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4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지난해 3월 국내 최초 직진자율주행 이앙기를 선보인 대동공업은 내년 초 자율주행 트랙터도 출시할 예정이다. 농기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대동공업은 지난달 서울대와 자율주행 농기계 등 정밀농업 공동연구 MOU를 맺었고, 3월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농업용 로봇연구 MOU를 체결했다.

다만, 대동공업은 농기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필연적으로 오르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에 힘써도 농민들의 구매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용화는 요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동공업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농기계 자율주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차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이달 13일 대동공업 대구공장을 방문했을 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aaaa3469@

SKT, 중소 셀러에 금융대출

현대캐피탈과 손잡고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 출시
비금융 빅데이터 활용...대출한도 높이고 금리우대까지



#5년째 매월 2000만~3000만 원의 온라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A씨는 신상품 확보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최근 발생한 몇 차례의 연체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1금융권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0% 수준의 금리로 제공하는 2금융권이였다.

SK텔레콤은 사업은 잘 되지만, 단거적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온라인 판매자를 위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를 활용한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20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 거래 정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존 신용평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존 신용평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신용등급이 1~2등급에 해당하는 비중은 약 35%에 불과하며, 신용등급이 높아도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긴급 자금 융통이 쉽지 않다.

SK텔레콤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중소 판매자의 △매출 및 정산 △고객 주문 취소 및 반품 이력 △판매 품목 △구매자 리뷰 및 고객 응대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판매자의 매출 세부 내역과 평판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용 평가 보완 지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같은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반품율이 낮은 판매자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개인간(P2P)대출에서 기존 신용평가등급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지만, 이동통신사가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K텔레콤과 11번가, 현대캐피탈은 이동통신, 이커머스 등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 평가에 활용, 중소 셀러들에게 대출한도 향상, 이자 절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현대캐피탈은 SK텔레콤의 비금융 빅데이터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도를 상향 또는 하향하는데 쓸 계획이다. 11번가 중소 판매자 최대 4만 명이 금융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통해 11번가 중소 셀러들은 매출 규모 등의 검토를 거쳐 기존 대출과 별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비금융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모델로 해석할 수 있게한 머신러닝 기술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우리은행과 현대카드 등 다양한 금융사와 함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 모델 기반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출시를 논의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타 이커머스 셀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오프라인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취임 “혁신성장 기업 육성”

중소 현장·정책 전문가 평가



요성을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화·디지털화를

18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김학도(사진)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취임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19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1년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역사를 이어받아, 중진공을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직 전임 이사장의 총선 출마로 중진공의 이사장직은 수개월간 공석이었다. 김학도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학도 신임 이사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신산업정책관, 대변인,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거쳤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문재인 정부의 제2대 중기부 차관을 지낸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취임식에서 김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

대한 제조혁신과 일자리 창출 △사업 효과성·효율성 강화로 혁신성장기업 육성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조직성과 향상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 중심 경영을 중점 기관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미래 산업 구조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혁신성장 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진공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친환경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를 업종별로 집중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마케팅, 비대면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글로벌 AI 창업사관학교,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등 중진공의 자금·수출지원·인력양성·창업기술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며 ‘100일 혁신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통과 화합, 변화와 혁신, 청렴과 공정, 활기찬 조직 문화를 경영원칙으로 기관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아스픽을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이가상 아스픽 대표를 만나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주민 기자 aaaa3469@

빗썸코리아 새 대표에 허백영 “인허가 획득 1호 거래소 만들 것”

“특금법 시행 대비에 만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성공적인 제도권 인착을 위해 새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빗썸코리아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허백영(사진) 전 대표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허 대표는 준법감시 총괄, 사업기획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표를 지내며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해 빗썸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표 재직 당시 금융사 업무 경험을 살려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다. 허 대표는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빗썸의 대표직 퇴임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사업 발굴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또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 대표는 앞으로 준법감시를 한층 더

강화해 빗썸이 가장 먼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만들 계획이다.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허 대표 취임과 함께 빗썸은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한다.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내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hura@

네오위즈 ‘방구석 인디 게임쇼’ 개최

인디 게임사 홍보 지원... 내달 9일까지 참가 접수

국내 인디 게임을 위한 온라인 게임 축제가 열린다.

네오위즈는 국내 인디 게임인들의 게임들이 참가하는 ‘방구석 인디 게임쇼 2020(비익스 2020)’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익스 2020은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외 게임쇼가 취소됨에 따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인디 게임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다. 네오위즈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며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트위치, 인벤이 후원사로 참여

해 홍보를 지원한다.

비익스 2020을 통해 게이머들은 온라인을 통해 게임쇼를 관람할 수 있다. 다양하고 독창적인 국내 인디 게임들의 데모버전 시연은 물론 최신 게임 영상들도 만날 수 있다. 비익스 2020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비익스 2020 참가를 희망하는 인디 개발사는 공식 접수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 개발자 또는 개발사이며 PC, 모바일 등 플랫폼에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내



달 9일까지로 참가비용은 무료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게이머들과 만날 기회조차 사라진 국내 인디 개발사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온라인 인디 게임쇼를 기획했다”며 “인디 게임 팬과 개발사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자 축제의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Online for Offline>

유통가 新사업 전략 'O4O'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몰 이용 가능한 강남 'LF몰 스토어' 고객 3배↑
롯데 록스·올리브영 스마트 스토어 등 온·오프 상생 방안 잇달아 모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경쟁 구도로만 해석하는 시대는 지났다.

온라인을 키우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어 들 것을 우려했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시너지를 낼 방안을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을 강조하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에서 진화해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고객을 확대하는 O4O(Online for Offline) 플랫폼까지 도입하며 온·오프 상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생활문화기업 LF는 O4O 개념의 'LF몰 스토어'의 유통망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패션업계는 온라인을 강화하며 온라인 통합몰을 론칭하거나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해 왔다. 하지만 가두점 비중이 높은 LF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의 상생이 절실했다.

LF는 지난해 10월 자사의 서울 강남권 대표 종합 가두매장인 GS강남타워 종합매장을 'LF몰 스토어'로 재단장 오픈했다. LF몰 스토어는 온라인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고객에게 매장 곳곳에 비치된 태블릿PC를 이용해 LF몰을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과 연계한 픽업 서비스 전용 매장도 갖췄다. LF몰 스토어는 LF몰 앱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픽업 요청을 하고 매장에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O4O 전용 매장이다. LF몰 스토어는 기존 오프라인 가두매장과 달리 헤지스 피즈라인, JSNY, 일코르소 등 LF몰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PB) 및 상품을 진열하고 있어 고객은 온라인 전용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



'LF몰 스토어' 광주상무점

볼 수 있다.

GS강남타워점을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5개의 LF몰 스토어는 리뉴얼 오픈 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7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평균 구매고객 수도 3배가량 증가했다.

LF 측은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온라인 사업 강화 전략을 강조하는데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의 변화도 함께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현재는 5개 점포이지만 내년까지 50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이 지난달 오픈한 7개 유통 계열사를 한데 모은 '롯데온(ON)'도 O4O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 롯데온은 전국 1만5000여 개 매장이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표방한다.

단골매장의 혜택만 모아 보여주는 '매장 ON' 코너에서는 매니저들이 자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롯데의 헬스앤뷰티 스토어 록스(LOH B's)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른 O4O 플랫폼을 구축했다. 록스 앱을 통해 '상품별 판매 매장 찾기', '스마트 리뷰 검색', '스마트 영수증' 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리브영은 올해 초 온라인 경험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올리브영은 전국 매장 직원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해 자체 앱 '올영EZ'를 통해 고객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영EZ'의 대표 기능은 피부 문진 서비스다. 매장 직원 누구나 고객들의 피부 상태나 고민을 명확하게 상담하고 적합한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피부 문진 서비스를 고안했다.

인기 상품 추천 정보도 체계화했다. '올영EZ'를 통해 주간, 월간 인기 상품을 즉시 확인하고, 연령대, 성별 등에 따라 인기 상품을 추려 정교한 큐레이션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상품 상세 정보와 평점, 인근 매장의 재고 여부 등을 고객과 함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둘 문을 닫고, 특히 가두점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으면서 오프라인 매장 강화가 온라인 강화와 함께 중요해졌다. 온라인 경험이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돕고, 온라인 경험이 낮은 장년층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면서 온라인몰로의 유입을 도와 온·오프라인 동시에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홍관중 응원 먹거리 다 모였네

이마트가 프로야구와 K리그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홍관중'을 위한 응원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마트는 27일까지 델리 치킨 전 품목(3종)을 행사 맥주와 동시 구매 시 30% 할인 판매한다. 1970년대 프라이드 치킨 맛을 재현한 '1977 치킨'과 '프리미엄 시크릿 치킨'은 기존 1만2980원에서 30% 할인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재난지원금으로 상품권 산다

사용기한 긴 유가증권, 소비진작 취지 어긋나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을까. 음료나 스낵류와 텀블러, 머그잔 등 MD상품까지 제한없이 쓸 수 있지만 단 한 품목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바로 커피 상품권이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다. 재난지원금 사용 점포일지라도 문화상품권, 외식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유통업체 고객센터로 밀려들어 업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열흘 가량 접어들고 오프라인 신청 이틀째를 맞으면서 유가증권 판매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원금이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것인 만큼 3개월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은 1~5년으로 사용기한이 길어 즉시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일명 '상품권 깡' 업체로 불리는 상품권 거래소에서도 재난지원금 중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 매입과 백화점·구도 상품권의 판매가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영등포역 인근 상품권 거래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백화점 상품

권을 구매할 수 없다"고 문의하자 손사래부터 쳤다. 어느 곳을 가든 이구동성으로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상품권이라 불리는 모든 유가증권은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셈이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에서도 각종 선불카드는 구매할 수 없다. 선불 통신카드, 게임선불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각종 주유상품권도 재난지원금으로는 구입 불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는 외식업체에서는 구매 문의가 늘자 구매 불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은 갖췄지만 잦은 문의전화와 매장 내에서 가끔 실랑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본사와 직영점에서만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장수가 적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것은 다행"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악용할 목적으로 외식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때문에 매장 내에 상품권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붙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내 첫 임상

GEN-001 안전성·내약성 등 평가... 적응증 확대 기대감

지놈앤컴퍼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 군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암 치료, 면역력 등에 다양한 효과를 내며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국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에 대한 국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놈앤컴퍼니는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인 GEN-001에 대한 임상1상 IND를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인 15일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7월부터 임상 시험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보건복지부의 스마트임상

시험플랫폼 기반구축사업(2019년 7월부터 최대 3년간 124억 원 지원)의 세부 과제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놈앤컴퍼니는 GEN-001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이용해 임상시험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원은 건강한 남성 자원자를 대상으로 단회 경구 투여 시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한다.

지놈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임상을 주도할 연구자들과 협력해 GEN-001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제 임상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료제 상용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 머크·화이자와 진행 중인 GEN-001과 바벤시오(PD-L1억제제)의 병용임상 형태를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

이며, 이번 임상시험 결과가 GEN-001 적응증을 확대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인 가운데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첫 사례여서 이번 임상이 국내 가이드 마련에 테스트베드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국내 임상시험 확대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바이오랩, 천랩 등 국내 대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기업들은 국내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규정에 대한 부담이 적은 미국·호주 등지에서 해외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놈앤컴퍼니는 연내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CJ제일제당 '백설 고급유' 패키지 리뉴얼

CJ제일제당이 '백설 고급유' 패키지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리뉴얼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설 고급유는 카놀라유,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요리유, 바삭한 요리유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리뉴얼은 '재활용성'과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 유색 페트(PET)병을 투명한 색으로 변경

했다. 페트병에 라벨을 붙인 채로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제품 라벨에 '수분리성 접착제'를 사용했다.

또한 뚜껑과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10%가량 줄였다.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변경했다. 올리브유를 담던 전통적인 코르크 마개에서



적당한 캡 형태로 고급감을 강조했으며, 주방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해 심플한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패키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늘리고 재생이 불가능한 포장재는 줄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친환경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마트, 이디야 손잡고 PB 원두커피 출시

'초이스엘 싱글오리진' 4종

롯데마트가 홈카페족을 겨냥해 신제품을 출시한다.

롯데마트가 커피전문점인 이디야커피와 손잡고 초이스엘 싱글오리진 원두커피 4종을 22일과 6월18일 각 2종씩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싱글오리진 원두커피는 단일 커피 생두만 사용해 최적화된 맛중형 로스팅을 거쳐 즐기는 프리미엄 원두커피다.

초이스엘 싱글오리진 원두커피는 올 4월 설립한 이디야커피 자체 로스팅 공장인 '이디야 드립팩토리'에서 생산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싱글오리진 원두커피는 '브라질 세하도', '콜롬비아 수프리모',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케냐AA' 4종이며, 1kg당 1만2980원에서 2만148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유통사와 카페 프랜차이즈가 개발 단계



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유통사의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는 사례는 드물다.

롯데마트는 코로나19 사태로 홈카페 필수템인 원두커피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자 홈카페 사업 강화에 나섰다. 실제로 올 1~4월 롯데마트의 원두 매출은 전년 대비 34.2%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남주현 기자 jooh@

모든 은행 계좌
수수료 없이
i-ONE 은행으로

쑥!



송금수수료 **0원**
완전 면제

개인인터넷뱅킹, i-ONE뱅크(개인),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개인고객 누구나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2020년 12월 31일 까지, 타행 자동이체는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2013호(2020.05.04) 게시기한: 2021.04.2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확 달라진 동학개미 “우량주에 장기 투자”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3월 18일~5월 18일)

종목명	금액(억 원)	현재가(원)
삼성전자	2조9768	5만300
현대차	7338	9만9100
SK하이닉스	7275	8만2700
삼성전자우	5575	4만3200
KB금융	4162	3만1950
LG화학	4107	36만1700
SK이노베이션	2803	10만3500
POSCO	2354	17만1800
삼성SDI	2272	31만1750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두 달간 11조6099억 순매수 테마주 편승 투기성 매매 줄어 증시 반영 영향력도 커져

개인투자자들이 과거와 다른 투자 패턴을 보이면서 증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테마주에 편승한 투기성 매매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로 돌아선 모습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두달간(전일 종가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홀로 11조6099억 원을 사들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1.73% 급등하며 동학개미운동의 위력을 증명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조7233억, 8295억 원

을 순매도했다.

통상 개인투자자는 외국인에 비해 자금력이나 투자 정보 등이 부족해 ‘눈물의 개미’로 묘사되곤 했다. 그러나 개인의 증시 참여가 급증한 올해의 경우 이들은 대부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과 투자 패턴과 매매 규모가 달라지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재훈 SK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 기준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연초 47.1%에서 현재 66.5%까지 상승했다”며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았지만, 증시가 연저점을 기록한 3월 3주차에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누적수익이 대부분 플러스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많이 매수한 셀트리온, LG화학의 누적수익도 모두 플러스로, 과거와 달리 단순 낙폭과대주가 아닌 우량주 혹은 주도주에 대한 접근이 크

게 늘었다”며 “장기 저금리 기조, 스마트 개미 증가, 대체 투자처 미흡 등으로 개인의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학개미가 2개월 간 사들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2조9768억 원), 현대차(7338억 원), SK하이닉스(7275억 원), 삼성전자우(5575억 원), KB금융(4162억 원), LG화학(4107억 원), SK이노베이션(2803억 원), POSCO(2354억 원), 삼성SDI(2272억 원) 등 우량주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3484억 원), 셀트리온(-1931억 원), LG생활건강(-1025억 원), 넷마블(-651억 원), 현대엘리베이(-645억 원), 한진칼(-550억 원), 코스맥스(-392억 원) 등을 순매도했다.

단순 테마주에 휩쓸려 단타 매매를 지향하기보다는 실적을 고려한 장기 투자를 이 어간 점도 주목할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로 주목을 받은 진단키트주도 실적에 따라 종목 간 희비가 갈렸다. 1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584%, 2332% 급증한 씨젠과 랩지노믹스의 경우 개인 매수세가 몰렸다. 반면 적자를 기록한 수젠텍과 바이오니아의 경우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밖에 도남북경협주, 정유주, 원격의료주, 정치관련주 등 올해 다양한 테마주가 등장했지만 주가 등락폭이 좁거나 수급 변동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3월 베스트셀러 20권 중 7권이 주식투자 관련 책인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공부하는 개인이 늘었다”며 “증시 하락으로 인한 가격 매력,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하락,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증시 정보 급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기업PR>

세금 없고 안전한 ‘金테크’ 하세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에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저렴한 비용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KRX금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RX금시장 골드바.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1g의 가격은 6만8650원(15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21.4%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경기 둔화,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도 6.4% 올랐다.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된다.

통상 금은 KRX금시장, 실물매매(금운방), 골드뱅크, 은행금신탁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이중 가장 가장 저렴한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는 곳이 KRX금시장이다. 보통 국제 금시세 대비 100.2 ~ 100.3%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골드뱅크, 금ETF의 경우

또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서비스)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0.2%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 이는 은행 골드뱅크의 1%, 은행금신탁 0.8% 등 다른 투자수단 대비 가장 저렴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KRX금시장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일하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금시장”이라

며 “금가격 상승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금실물인출을 원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거래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거래 전용 계좌가 필요하다. 증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다. 1kg, 100g 골드바 상품 모두 거래단위는 1g이므로 투자자는 6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골드바 실물인출을 원할 경우, 거래 증권사에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이며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KRX금시장 일평균거래량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43.6kg로 집계됐다. 올해도 금 수요가 늘면서 현재 전년보다 112.6%가 늘어난 92.6kg을 기록 중이다.

“채안펀드, 신용등급 ‘A+’ 기업도 매입”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프리이머리채권담보보증권(P-CBO)이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비우량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시장의 수급을 보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안펀드는 가동일인 4월 1일 기준 ‘AA-’ 이상 등급이었으나 이후 ‘A+’로 등급이 하향된 기업들도 매입대상으로 편입한다. 또 오는 29일 총 5090억 원 규모(23개 기업)의 코로나19 P-CBO와 4277억 원(174개 기업)의 주력산업 P-CBO가 발행될 계획이다.

여전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달부터 채안펀드는 A+ 등급의 여전채도 매입할 수 있다. 6월 말부터는 코로나19 P-CBO 발행시 A- 등급 이상

의 여전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채안펀드의 경우 AA- 등급 이상 여전채를 매입했으며, 코로나19 P-CBO는 여전채를 매입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병목현상 해를 위해 7개 은행에서 지원신청을 받으며, 전산 구축 준비가 마무리되는 6월 내로 전국 지방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서는 내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6월 중 기업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정부는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위축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필요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여말린당) 6층 | 대표전화 02-3576-1100 

‘불닭 돌풍’ 삼양식품 ‘1兆 클럽’ 가입 눈앞

라면업계 3위인 삼양식품이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주의 성장과 해외시장 선전을 기반으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연이은 주가 상승에 시가총액 1조클럽 가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양식품 주가는 전날 장중 13만3500원까지 오르며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잠깐이지만 시가 총액도 1조 원을 넘어섰다. 19일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하며 12만40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시가총액은 9717억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올들어 43.49% 올랐고 지난 달 이후로만 38.41%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삼양식품 주가 상승에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유명세가 큰 역할을 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출시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유튜브 스타 ‘영국남자’가 매운맛에 도전하는 ‘불닭 챌린지’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외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 불닭 시리즈 먹기를 높이문화로 확산된 상황이다. 삼양식품은 여세를 몰아 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등 5년간 약 30종의 후속작을 출시했다.

이같은 인기로 힘입어 중국 수출액은 2016년 450억 원에서 1년 만에 1000억 원

삼양식품 주가 추이 (단위: 원)



영국남자 ‘불닭 챌린지’ 영상 인기 코로나19 반사이익까지 더해 올 1분기 매출 1563억 역대 최대 주가 12만4000원 연일 ‘신고가’

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불닭볶음면이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200억 원, 말레이시아에서 150억 원어치나 팔렸다. 때문에 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고 매출은 29% 증가한 1563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가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목표주가를 일제히 10~25% 상향 조정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상장 후 ‘퀀텀’ 점프... ‘무차입 경영’ 예고

상장사 재무 분석

클래시스

클래시스가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에도 성장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올해 60%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달성도 점치고 있다.

클래시스는 2007년 설립된 의료기기(병원 시술용 및 에스텍용 미용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업체다. 2017년 12월 말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변경 상장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정성재 대표(50.97%)를 비롯한 오너 일가와 일부 임원 포함 85.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주식시장 입성 이후 클래시스의 성장은 퀀텀 점프라 할 만하다. 2017년 연결기준 349억 원이던 매출은 이듬해 475억 원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811억 원으로 폭증했다. 수익성 측면도 이와 비슷해 2017년 영업이익 108억 원에서 2018년 175억 원, 2019년 417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클래시스 연결기준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1Q
매출	475	811	214
EBITDA	182	431	139
영업이익률	36.8	51.4	62.7
부채비율	48.3	29.3	29.1

1분기 영업이익 63%... 매년 증가 사육 매입 차입금 올해 털어낼 듯

국내외 슈링크 판매 증가와 시술 환자 증가를 기반으로 소모품 판매가 급증한 영향이다. 국내외 슈링크 누적 판매량은 45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매출 214억 원에 1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62.7%에 달한다.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은 2017~2018년 30%대에서 작년 51.4%, 올해 60%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슈링크 제품 사용 시 소모품이 사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결과다.

재무 안정성도 돋보인다. 1분기 기준 부

채비율이 29.1%에 불과하다. 2017년 클래시스타워 사육 매입과 2018년 미사 제2 공장 매입을 위해 차입을 했지만 상환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차질없이 빚을 털어냈다. 2%대의 저리로 차입해 이자비용도 4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작년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52.1배에 달한다.

사육 매입 관련 차입금은 올해 상환 예정이어서 이 빚만 갚고 나면 사실상 무차입경영이다. 아울러 1분기 기준 현금성자산 426억 원에 70억 원 규모의 단기금융상품을 갖고 있다. 향후 사업 확장에 있어 외부 차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현금을 사내에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클래시스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분기 실적이 다소 우려되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적어도 작년과 유사한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앞세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가 컨센서스로 매출은 전년보다 11.1% 늘어난 901억 원, 영업이익은 16.3% 증가한 485억 원이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60%대 영업이익률 달성을 전망치로 내놓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관계사 순익 급증...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상장사 재무 분석

바른손이앤에이

코스닥 상장사 바른손이앤에이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당기순이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바른손이앤에이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44억 원, 영업손실은 2억 원이다. 영업손실의 경우 분기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41억 원을 기록해 62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의 경우 7분기만의 흑자다. 영업손실에도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관계기업투자손익에서 46억 원을 벌었기 때문이다. 관계기업투자손익은 일반적으로 관계사들의 순이익에서 비롯된 지분법손익과 보유 중이던 관계사 주식을 처

분하면서 발생하는 투자처분손익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3월 바른손이앤에이의 관계사 ‘바른손’은 또 다른 관계사 ‘졸스’를 흡수 합병했다. 모기업인 바른손이앤에이는 합병 과정에서 발행된 바른손의 합병신주 518만여 주를 교부 받았고, 지분변동 차액 41억 원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바른손이앤에이는 졸스를 관계사에서 제외시키고 바른손의 지분율은 기존 31.5%에서 합병 후 35.65%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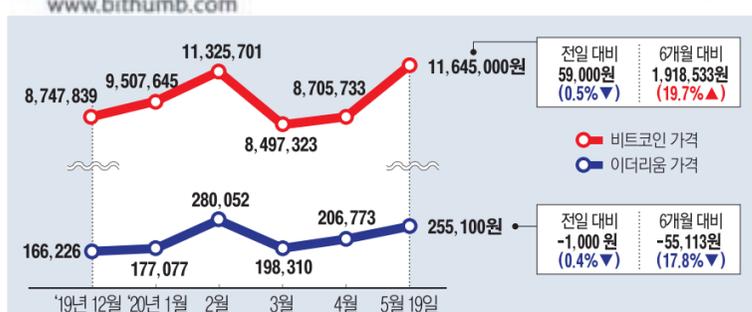
또 관계사 ‘단단단’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가와 장부가의 차액 5억 원가량을 1분기 투자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서 순이익의 증가를 견인했다.

바른손이앤에이는 지난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게임과 영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로 이름을 알리며 주식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 170억 원 가운데 기생충을 비롯한 영화 부문에서 113억 원이 발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bithumb 빙셈

빙셈 지수 (2020년 5월 19일 17:00, KST)



종류	종목명	가격(원)	전일 대비	6개월 대비
이더리움 가격	이더리움	280,052	198,310	206,773
	이더리움 클래식	8,080	-60	-3
	퀀텀	1,894	-3	-3
	모네로	88,750	3,500	4.1%▲
	비트코인골드	11,200	-10	0.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KB금융그룹 | 국민행복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신혼부부, 노년부부, 유리아이, 직장인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건강보험, KB자녀보험, KB자동차보험, KB간편청구서비스, KB종신보험

그랑드아트섬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마메트 스카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바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자녀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종신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건강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간편청구서비스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자동차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예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밀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의 경우에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문의: 심의팀 제18649호(2019.07.08) *주식서비스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문의: 심의팀 제2019-02195호(2019-07-09) *주식서비스 명동동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www.kbf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성북동 재개발 '순항·회항·좌초' 히비

- 2구역** 신월곡1구역과 결합 개발... 1구역도 '공공재개발'로 선회
- 4구역** 서울시, 기반시설 확충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모색
- 3구역** 사업비 두고 시공사와 송사, 大法 패소로 '구역 해제' 확정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재개발사업 히비가 구역별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구역은 결합 개발, 공공 재개발 같은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선 사업 좌초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북동은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 달동네가 뒤섞인 곳이다. 외국 대사관지와 저택이 늘어난 선잠로 큰길에서 한 골목만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소형주택들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성북동 일대에선 2004년부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네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나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을 준비했다.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2구역이다. 성북동 재개발 구역에서 유일하게 조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주택은 매매값이 3.3㎡당 2000만 원에 가까운 것도 이 때문이다.

성북2구역은 현재 같은 성북구 관내인

신월곡1구역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2구역 용적률을 낮춰 신월곡1구역으로 이관하는 대신 신월곡1구역은 재개발 수익을 성북2구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자연경관지구 등으로 묶여 고도 제한을 적용받은 성북2구역에선 재개발 자원이라도 확보하는 게 이익이다. 성북2구역 조합 관계자는 "결합 개발이 아니면 재개발을 성사시킬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성북2구역 조합은 결합 개발로 얻은 재원을 종잣돈으로 지역에 고급주택 283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성북1구역도 2구역을 쫓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4년 재개발 조합 추진위 인가를 받은 성북1구역은 15년 넘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올해도 성북1구역은 구역 지정을 두고 성북구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성북1구역 추진위는 공공 재개발

성북동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구역명	사업 내용(단계)	비고
성북1구역	아파트 2044가구(추진위)	공공재개발 검토
성북2구역	테라스하우스 283가구, 가구별 정비 병행(조합 설립)	신월곡1구역과 결합 개발
성북3구역	2017년 정비구역 해제	5월 14일 대법원 판결 확정
성북4구역	2015년 정비구역 해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공공 재개발 방식을 선택하는 정비사업장에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중(種)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공공 사업자로 참여시키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절반을 공적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조건이다. 사업성을 두고 갑론을박에 시달렸던 성북1구역에선 낭보다.

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부담이지만 용적률이나 중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해 볼 만하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측과 접촉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북1구역은 10월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장에 도전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성북1, 2구역은 각자 활로를 찾고 있지만 3, 4구역에선 재개발이 멈춰섰다. 사업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재개발 정책이 까다로워지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성북4구역은 2015년 주민 갈등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비를 두고 시공사와 송사까지 벌여야 했다.

이후 성북4구역은 후속 사업 없이 오랫동안 방치됐다. 2018년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성북4구역 내 주택 117채 가운데 83채(71%)가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으로 조사됐다. 39채(33%)는 빈집 또는 폐가 상태였다. 서울시는 성북4구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리모델링

을 장려하는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 한다. 하지만 올해 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태여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성북3구역도 좌초 위기에 빠졌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3구역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행정소송을 벌였다. 1심에선 승리를 거뒀지만 2, 3심에서 연패했다. 3심까지 패배하면서 3구역은 회생 기회를 잃어버렸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성북3구역이 1구역이나 4구역의 길 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본다. 인근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예 정비구역 지정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공보다는 우회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강숙희 무지개부동산 대표는 "지역에선 3구역도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다"며 "이미 외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고 신축 건물도 많은 만큼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www.kamco.or.kr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숲 '알짜땅' 주차장 매각 작업 시동

시, 이르면 10월 용도변경 마무리 공개 매각은 내년 6월 이후 전망

서울시가 노른자 땅인 성동구 서울숲 인근 주차장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 나섰다. 개발업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주차장 부지(성수동1가 643)의 용도지역 변경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성동구가 서울숲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 및 공원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2만8804㎡)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골자다. 특히 이 변경안엔 서울숲 공원에 붙어있는 1만9600㎡ 규모의 주차장 부지 중 97%인 1만9085㎡의 용도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서울숲 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용도 변경은 이르면 올해 10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나 서울숲 주차장 부지가 공개 매각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시는 이 부지가 한강과 대규모 공원이 위치한 역세권 노른자 땅임에도 합리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땅은 분당선 서울숲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부지다. 신흥 부촌인 성수동의 랜드마크단지인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가 각각 700m 안팎 거리에 있을 만큼 가까운데다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주거시설이 완공되면 갤러리아포레와 올해 말 입주할 앞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한강변에 위치한 트리마제로 이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개발업체는 보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대림 '아크로'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선호 1위

대림산업의 '아크로' 브랜드가 최고급(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다방에 따르면 '가장 살고 싶은 하이엔드 아파트'를 묻는 말에 응답자 가운데 31.1%가 아크로를 꼽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등 신흥 부촌에서 하이엔드 아파트 수요를 선점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게 다방 측 분석이다. 아크로를 꼽은 응답자 중에선 40·50대의 브랜드 선호도(36.7%)가 20·30

대(28.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2위는 현대건설 '디에이치(31.6%)'가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디에이치 나너힐즈'를 선보인데 이어 디에이치 브랜드를 앞세워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권도 따냈다. 2030세대에선 디에이치 선호도가 31.6%로 아크로보다 높았다. 일반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선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 GS건설 '자이(18.9%)'가 1위에 올랐다. 자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브랜드 선호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박종화 기자 pbell@

“CJ, 서울대 후생시설 영업권 정당”

유모멘트 “경업제한 위반” 주장
법원 “CJ프레시웨이 효력 없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의 서울대학교 후생시설 영업권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권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최대 웨딩 기업 유모멘트가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2014년 CJ그룹의 예식장업 철수와 연관이 있다.

당시 CJ푸드빌은 대기업의 예식장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전속인예식장업연합회와 자율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부정적 인식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후 CJ푸드빌은 2016년 4월 아펠가모 웨딩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 주식 100%를 유모멘트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식매매 계약 제11.6조 ‘경업제한 조항’에는 CJ푸드빌이 거래 종결일 이후만 5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웨딩연합업종’(예식장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J가 예식장업 철수 4년 만에 다시 진출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CJ프레시웨이는 1월 ‘서울대학교 후생시설(예식·식당)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5월까지 5년간이다.

이에 유모멘트는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모멘트는 “경업(경쟁업종)제한 조항은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CJ푸드빌뿐

만 아니라 CJ프레시웨이에도 효력이 미친다”며 “CJ프레시웨이가 CJ푸드빌과 별개라며 예식장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인격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는 모두 CJ 계열사지만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며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CJ푸드빌만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경업제한 조항의 효력이 CJ프레시웨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대 후생시설 사업) CJ푸드빌의 영업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경업제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CJ프레시웨이를 통해 예식장업을 영위하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 교사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책상마다 설치된 가림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3 등교 시작 “1m 거리두기 힘들어”

이동·화장실 이용엔 통제 불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고3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일선 고등학교들은 수업 운영 방식과 방역 지침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선 학교들은 ‘교내 거리두기’를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전날 학교 내 생활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교육 활동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업 시 학생 간 거리 1m 이상 확보 등 기본 방역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현준 서문여고 교사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어떻게 열 감지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면서 “책상을 1m 이상 띄어 놓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는 거리두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이나 급식실 이동 시 등은 사실상 학생들을 전부 통제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특성학교의 경우 그간 원격수업으로 하지 못했던 실습수업을 준비 중이다.

이상훈 용산공고 교사는 “직업계고 특성상 이론보다는 실습이 우선돼야 했지만,

한 달 이상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하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며 밀린 실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공고 역시 학생 간 1m 거리두기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이 교사는 “실습을 하는데 교사와 학생 간, 학생 간 1m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내 시설구조상 1m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용 화장실은 한정돼 있고 소변기 간격이 채 1m가 되지 않는다”면서 “몇 백 명의 학생들이 짧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소변기 4~5칸밖에 안 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리두기가 실천되었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1m 줄서기 발판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편 등교 일정은 20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중3·초1~2학년·유치원 27일 △고1·중2·초3~4학년 6월 3일 △중1·초5~6학년 6월 8일이다. 고1·2학년 학생들은 격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주 1회 이상 학교에 간다. 손현경 기자 son89@

박원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들 확진... 접촉자 265명 검사”

신속대응반 구성해 조사

국내 대형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의 간호사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5시에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추가 검사 결과 3명이 확진됐다”며 “모두 함께 근무한 간호사들이고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확진된 간호사는 모두 여성이며 송파구(29세), 서초구(24세), 강남구



(30세), 강북구(41세) 거주자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첫 확진자는 14일까지 흉부외과수술에 참여했고, 15일에는 수술실 밖에서 환자 분류작업을 했다. 해당 수술실은 음압이 걸려 있는 수술실로 확인됐다.

16일부터 미열이 나고 인후통 증세가 있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38도의 고열과 기침 증세가 지속해 18일 오전 병원 자체 검체 검사를 했다.

박 시장은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접촉한 의료인 262명과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병원은 분관 3층 수술장 일부와 탈의실 등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방역했으며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 장소가 대형 병원이라는 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신속대응반 18명을 구성해 동선, 접촉자, 감염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간호사들이 수술에 참여한 C구역을 포함해 분관 3층의 수술실 25개를 전체 폐쇄하고, 앞으로 3일간 신규 입원 환자 접수를 받지 않는다.

설경진 기자 skj78@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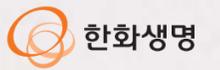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박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엔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

“IPO 수수료 수익 한계 명확... 새로운 길 찾아야”

방한철 한국투자증권 IB1본부 기업금융2부 이사

딜 수수료 대기업의 경우 1% 불과 ... IMF 직전 수준 올해 15곳 상장 목표, SK바이오팜·빅히트엔터 주목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IMF 직전과 현재 IPO 수수료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 파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방한철(사진) 한국투자증권 IB1본부 기업금융 2부 이사는 1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IPO 시장을 포함한 IB 시장 전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한투증권이 일찍이 프리IPO 같은 자기자본 투자(PI) 비중을 늘려나간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통상 자문수수료율이 6~7%에 달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IPO 딜 수수료는 평균 2~3%에 그친다. 특히 공모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1% 수준이다. 거기에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과 상관없이 딜이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는 “수수료 기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I 투자를 다른 증권사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투증권 IPO 부서는 프리IPO를 통해 전통적인 인수·주선 수수료와 맞먹는 매출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방 이사는 한투증권이 프리IPO 쪽에서 더 많은 업력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기존 IPO 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에 필요한 투자나 자금조달 형태를 고민하는 과정에 프리IPO 등의 자기자본 투자가 포함했다는 것이다.

한투증권 IPO의 강점으론 조직 내 인력에 대한 신뢰와 오랜 시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꼽았다. 20년째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진우회’가 대표적인 예다. 2004년 동



원증권 시절 만들어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객 모임이 2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소속 CEO만 300명에 달한다. 소속 기업 IPO 사례도 꾸준히 쌓이면서 ‘딜 수입 기지’로 통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얼어

붙었던 IPO시장도 서서히 살아나는 추세다. IB1본부는 연내 15개 내외 기업을 연내 상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 이사는 움츠렸던 IPO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선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 삼성카드 상장 당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IPO 투자 문을 개방하면서 공모 시장이 한 단계 성장했듯, 큰 규모의 딜들이 성사돼야 자본시장 불륨이 커지며 소규모 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기대되는 딜로는 SK바이오팜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를 꼽았다. 모두 공모 규모가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 기업이다.

방 이사는 “SK바이오팜은 K-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연히 달라진 데다, 지난해 말 뇌전증 치료 신약에 대한 FDA 품목 허가를 받는 등 기관투자자 관심이 쏠린 상태”라며 “빅히트의 경우 방탄소년단(BTS)에 포커스가 지나치게 쏠린 경향이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에 걸러야 이점을 보유한 회사로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 새 사령탑
박기호 회장·임석규 상근부회장 선임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회(KITIA)가 국내 대표급 금융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력자를 새 사령탑으로 발탁했다.



KITIA는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박기호(사진) LB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신임 상근부회장에 임석규 전 국무총리실 국장을 선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국민기술금융(현 KB인베스트먼트), 현대전자 팀장, 스틱인베스트먼트 상무를 거쳐 LB인베스트먼트(구 LG벤처투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30여 년 동안 다수의 유망 벤처기업들에 투자하고 성장시킨 국내를 대표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석규 신임 상근부회장은 33년간 중앙부처 공직 근무의 다양한 정책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신임 회장이 협의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보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기영 기자 pgy@

홈쇼핑, 대표이사 후보에 김옥찬 前 KB금융지주 사장

홈쇼핑이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했다.



홈쇼핑은 19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홈쇼핑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3월 이사회에서 위원장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과 하준 전 현대그룹 전무를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다. 이사회는 이에 두 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로 김 전 사장을 결정했다. 홈쇼핑 측은 “특히 홈쇼핑에 필요한 리더십인 ‘지속가능성’, ‘혁신과 성장’과 함께 고객 관리능력, 협력업체 관리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BTS 현대차 수소 캠페인 영상 조회 1억회 돌파

자연이 선사하는 일상 속 소중한 언어에 네티즌 호응

현대자동차는 지구의 날을 맞아 공개한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글로벌 수소 캠페인’ 영상(사진)이 27일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현대차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영상은 아름다운 대자연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중요함과 수소에 관한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 속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연이 선사하는 일상 속의 소중한 언어를 강조했다. 영상 말미에는 물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차 넥소가 등장해

‘수소’와 현대차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했다.

현대차는 이번 영상이 단기간에 많은 조회수를 달성한 데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방탄소년단의 영상미뿐 아니라, 영상 속 ‘아름다운 대자연의 소중한 언어’의 의미가 밀레니얼 세대 고객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돼 높은 공감대를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제품 구매 시에도 환경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주도하고 있어



수소 캠페인도 이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차는 영상이 다소 낯설 수 있는 예

너지 ‘수소’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계시판

故 이만화 벤처협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됐다

우리나라 벤처 1세대를 이끈 고(故) 이만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에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어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8월 별세한 이만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의료기기업체 메디슨(현 삼성메디슨)의 창업자로 우리나라 벤처업계 1세대 대표주자로 꼽힌다.



정몽규, 프랑스풋볼 ‘축구계 영향력’ 30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프랑스 축구 전문 주간지 프랑스풋볼이 선정한 ‘축구계 영향력 있는 인물’ 50인 중 30위에 올랐다. 1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프랑스풋볼은 정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이자 전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 현 아시아축구연맹(AFC) 부회장으로,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며 “FIFA 파트너인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으로, 세계 축구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SK네트웍스, 세이브더칠드런과 ICT 소외계층 지원 확대

‘꿈나무 사업’ 협약 체결...기부연계 프로그램 늘리기로

SK네트웍스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ICT(정보통신기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SK네트웍스는 19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와 ‘2020 ICT 꿈나무 사업’ 협약(사진)을 맺고, 정보통신사업 브랜드 민팅, 에이프릴스톤 등의 기부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ICT 취약계층 아동들의 IT 기기 구매 및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 폭넓은 지원을 펼친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자사 사업을

활용한 세이브더칠드런 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중고폰 매입기 ‘민팅 ATM’은 중고폰 기부 기능을 넣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기부 중고폰 1대당 1만 원 추가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3000명이 넘는 고객의 동참 속에 2500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해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말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에이프릴스톤 a20’ 제품의 세이브더칠드런 에디



션 2000개를 출시해 완판하고, 이를 기념해 최근 2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앞으로 SK네트웍스는 세이브더칠드런 기부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이웃돕기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디즈니플러스’ 이끌던 메이어, 틱톡 CEO로 영전

아이거 이후 후계자도 탈락...모회사 바이트댄스 COO도 겸임

미국 월트디즈니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이끌어온 케빈 메이어(사진)가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영상 서비스가 성장 동력을 얻으면서 업계 인재 이동도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NYT에 따르면 메이어는 2005년 디즈

니에 합류해 2018년부터 회사의 전략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을 이끌어왔다. 작년 가을 ‘디즈니+(플러스)’의 출시와 ‘홀루’ 인수 당시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는 올 2월 디즈니 CEO에 취임한 밥 차펙과 함께 밥 아이거 현 회장의 후계자로 주목받던 시기였다. 후계 구도에서 탈락하면서 탄 길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어는 틱톡의 CEO로서 미국 등지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 외에 모회사



인 바이트댄스의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겸한다고 한다. 바이트댄스 창업자이자 CEO인 장이밍은 성명에서 “케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바이트댄스의 제품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2017년 인수한 미국의 동영상 공유 앱 ‘뮤지컬리’가 전신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안보상의 위협으로 경고를 받은 경위도 있어서 최근 미국에 주재하는 새 CEO를 찾고 있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인사

◆국도교통부 ◇과장급 전보 △물류산업과장 이진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화중

◆특허청 ◇부이사관 승진 △비서관 정기현 ◇과장급 승진 △산업디자인심사팀장 정일남 △주거기반심사과장 여덕호 △환경기술심사팀장 신주철 △특허심판원 심판관 목승균 △특허심판원 심판관 배재현

◆시사IN △편집국장 이종태 △미디어랩장 김은남 △미디어랩 팀장 안희태 △경영기획실장 고재규

부음

▲최영순 씨 별세, 박용석(법무법인인광) 대표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윤석(CEO스코어데일리 논설실장) 씨 모친상 = 19일, 서울성모병원 23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02-2258-5940

▲장영임 씨 별세, 박영식-영대(매일경제 경리부장) 씨 모친상 = 19일, 남양주 국민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6시, 031-594-4442

일본은 지금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코로나19가 아니라 검찰 정년 연장 문제다. 이는 아베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시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법의 문제점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들의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검찰청에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인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라 검찰 정년 연장 문제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시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검찰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은 정부와 자민당의 처리 유예로 끝났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다음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구로카와 히로무(黒川弘務)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한다고 하면서 반년간 연장하는 각료회의 결정을 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검찰정법은 검찰총장 정년을 65세, 검찰총장 이외 검사는 63세로 규정하고 있다. 연장 규정은 없다. 구로카와는 생일 전날인 2월 7일에 정년을 맞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의 생일 직전 각료회의 결정으로 8월 7일까지 정년이 돌연 연장된 것

이다. 이를 통해 이나다 노부오(稲田伸夫) 현 검찰총장 후임으로 구로카와 씨가 취임할 길이 열렸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연장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법무성 측에서 결정한 정년 연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총리의 힘이 작음했다는 것은 검찰 간부 대부분이 각료회의 결정 후에 이 인사를 알게 됐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1월 말의 이와 같은 전례 없는 검사장 정년 연장에 대해 위법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아베 정권의 비리를 무마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아베 총리의 각종 스캔들이 법정으로 갈 경우 구로카와라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번 정년 연장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일본 정권은 검찰 인사에 간섭하지 않았다. 정치와는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검찰총장에 아베 정권과 관계 깊은 인물이 취임하면 결과는 뻔하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신의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는 인사를

계속해 왔다. 2014년에는 헌법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외무성 출신자를 기용해 헌법 해석을 억지로 변경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동맹국을 도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공영방송 NHK 회장 인사나 대법관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식구로 알려진 인물들을 등용해 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구로카와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사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이 법의 문제점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들의 직무 정년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검찰청에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베 정권의 자의적 법 개정에 대해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이 대거 반대하고 나섰다. 소셜네트워크킹서비스(SNS)를 통해 수백만 명이 '검찰청법 개정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런 여론의

반대로 인해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유예했다. 이에 주요 야당들은 18일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기세를 올렸다. 트위터를 통해 개정안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확산한 데 힘입어 야당들은 국회에서의 표결 처리 반대를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개정안 처리를 가을 임시 국회로 미뤘지만, 야당들은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개정안에서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 규정을 삭제할 것과 구로카와 도쿄 고검장의 정년 연장 철회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야당들은 이번 국회에서 아베 총리의 뱀짓 스캔들 등으로 정권을 추궁해 왔지만,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코로나19 대책을 우선시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청법 개정 문제만큼은 트위터 등에서 퍼진 정권 비판에 힘입어 야당들이 연대, 정부와 자민당의 방침 전환을 이끌었다. 이제 아베 1강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 최근의 일본 정국이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앱 업체 결합심사에 세간의 관심이 높다. 국내 배달앱 시장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로는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가 이 합병을 승인하면 독립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100% 장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달앱을 통해 사업을 하는 음식점 업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배달앱 합병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특정 업체가 독과점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에게 배달 수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도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필자가 일하는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도 엄격한 결합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보다 데이터 독점이 문제

배민의 요금제 개편 논란 과정에서 공정위가 곧바로 엄격한 심사 방침을 밝힌 데는, 배민이 경쟁 사업자나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격정책을 바꾼 것은 시장지배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업체(배민)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결합심사 중인데도 배민이 요금제 개편을 밀어붙인 걸 보면,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시장을 완전 장악한 독점기업이 앞으로 어떤 횡포를 부릴지 짐작이 된다. 딜리버리히어로로서는 한국 시장에서 배민 인수 자금 40억 달러(약 4조8000억원)를 가능한 빨리 회수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투자은행 업계는 지난해 12월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민의 합병 계약이 발표된 이후 배민에 대한 경영주도권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배민이 요금제계를 변경해 사실상 수수료를 올리기로 한 것도 경

영주도권을 전 딜리버리히어로가 자본의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자금 조기 회수에 혈안이 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폭락에 허덕이는 한국 영세 음식점들과 소비자들의 반발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수수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플랫폼 업체의 독점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배달앱의 수수료보다 데이터 독점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배달앱 등장 이후 어디에 사는 누가 언제 어떤 메뉴를 주문했는지 가맹점의 거래 정보를 배달앱 업체만 갖게 됐다. 미국에서도 배달앱 가맹 음식점들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돼, 계절 메뉴 개발과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달앱 업체가 축적한 데이터로 가맹점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편 데이터를 무기로 음식점을 지배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배달앱 업체들은 소비자 정보를 분석해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우버이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음식점들에 유료 컨설팅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공급이 달리는 지역에 배달앱 업체가 직접 배달 전문 식당을 차려 기존 음식점들을 입점시킨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 업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와 음식점업 관련 단체 등이 해관계자들뿐 아니라 정치권도 배달앱 업체 간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수료 개편 철회와 사과에도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근본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플랫폼 사업, 빅데이터 산업 같은 혁신산업은 네트워크 효과(어떤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난다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도 더불어 커지는 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이나 경쟁 제한적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혁신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이유다.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결합심사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오레드 발자크 명인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 소설가. 나폴레옹 숭배자인 그는 선한 삶이란 길지 않은 생애 동안 하루에 열여섯 시간씩 글을 써 100여 편의 장편과 여러 편의 단편소설, 여섯 편의 희곡과 수많은 콩트를 써낸 정력적인 작가다. 대표작은 '외제니 그랑데', '절대의 탐구', '고리오영감', '꿀짜기의 백합', '농민' 등이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799-1850.

☆ 고사성어 / 당돌서시(唐突西施)
추녀 무염을 미인 서시와 비교한다는 뜻으로 견주기 힘든 상대와 비교하는 것을 빗대는 겸양의 말이다. 진서(晉書) 약광전(樂廣傳)이 원전. 동진(東晉)의 상서복야(尙書僕射) 주의(周顛)는 겸허한 인품의 명망가. 사람들은 그와 똑같이 명망이 있었던 상서령(尙書令) 약광(樂廣)을 늘 함께 거론하여 두 사람의 뛰어난 학식과 높은 덕행을 칭찬했다. 그럴 때마다 주의가 겸허하게 한 말. "저를 그와 비교하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장한 추녀 무염을 당돌하게 서시에게 비교하는 것입니다[刻畫無鹽 唐突西施]."

☆ 시사상식 / 나심비
'나의 심리적 만족의 비율'의 줄임말이면서 '나', '심리', '가성비'의 합성어.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가성비와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와 달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만족감에 초점을 맞춘다.

☆ 고운 우리말 / 서덜
생선의 살을 발라낸 나머지를 말한다.

☆ 유머 / 솔깃한 셈법
직장 동료끼리 식당에서 갈비를 시켰다. 젊은 친구가 주인에게 물었다. "사장님! 이거 200그램에 만오천 원인데 뼈를 뺐 건가요? 뼈까지인가요?"
선배가 소주를 입에 털어 넣으며 사장 대신 한 말. "야! 너는 니 몸무게 달 때 뼈는 빼놓고 다녀?"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서영 국제경제부/0jung2@

난세에 영웅도 없다

리기'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코로나 발원지 중국이 애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만 잘했어도 비극의 역사는 다르게 쓰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형용하기 힘든 비극 앞에서 정작 미국은 뭘 했는가. 로렌스 프리드먼 킹스칼리지 런던의 전쟁연구

학 교수는 "미국은 세계 최고 자원·과학·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게 슬픈 일"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수많은 위기 국면에서 돌보인 건 미국의 리더십이었다. 조지 W. 부시는 2005년 말라리아 퇴치 이니셔티브를 출범

시켜 아프리카에서 200만 명의 어린 생명을 구했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베팅 오바마는 군대와 의료진을 급파해 국제사회 공조의 모범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생명을 앗아간 것을 넘어 '미국 예외주의'를 기초부터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아왔다는 이데올로기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티머시 가튼 애시 옥스퍼드대학 역사학 교수는 "제국의 흥망성쇠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친숙한 이야기"라며 "미국이 이걸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방향을 틀었는지 모른다.

미국 CNN 간판 앵커 에린 버넷은 3일 뉴스 진행 중 흐느껴 울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남편을 잃은 한 여성과 인터뷰를 하다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것이다. 세계 사망자 30만 명. 준비 없이 맞이했을 30만 개의 이별에 지구촌 곳곳이 울고 있다. 슬픈 사연에서 고개를 돌리면 눈물은 분노로 변한다. 시신 매장 공간조차 부족해 버려진 섬에 구덩이를 파고 집단 매장을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다. 명실상부 세계 리더인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무기력을 보고 있자니, 난세가 문제가 아니라 난세를 이끌 영웅의 부재가 이 시대 비극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때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1부 (02)799-2647	자본시장2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팩스	(02)784-1003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시작된 등교, 철저한 방역만 남았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상 등교(3월 2일)가 다섯 차례 미뤄진 지 79일 만이다.

20일 만형인 고3이 먼저 등교를 했다. 동생들은 27일(고2·중3·초1~2·유치원)과 다음 달 3일(고1·중2·초3~4), 8일(중1·초5~6)에 차례대로 학교에 간다.

교육당국은 등교 수업을 시작해도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불안한 지 고3만 매일 등교하고, 고1~2학년은 학년별이나 학급별 격주로 번갈아 학교에 가도록 했다.

중학생들과 이보다 더 어린 초등학생들은 주 1회 이상만 등교를 하도록 했으며 오전·오후반으로 분반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별 상황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어른들의 독선일 수 있다.

다만 고3 등교는 교육당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하다. 고3은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학생들의 등교 지침만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사실상 고3을 위해 내린 것이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과 학급이 격주나 주 1회 학교에 간다고 해서 대면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고3 등교도 임시방편이다. 학생이나 교직원 중 단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모

데스크칼럼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두 즉시 귀가 조치된다. 등교는 취소되고 다시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다행히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주춤했지만, 다른 유흥시설 등이 매개된 집단 감염 우려는 여전히 있다.

특히 전날 국내 '빅5' 대형병원 의료진 중 처음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A 씨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수술실 간호사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거나 방문자를 접촉하지 않는 등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 씨가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등은 300명에 가깝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몬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제 최선은 방역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과밀 학교'다. 서울에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 학교는 87개교 2968학급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학생 분산 방안을 시행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등교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 나올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지금껏 애써온 방역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하루 2회 이상 발열 검사를 비롯해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학생 간 접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식 시간 조정 및 한 방향 앉기, 띄어 앉기, 에어컨 가동 시 환기 자주하기 등 각종 방역 수칙이 빈틈 없이 이행돼야 한다.

교직원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생들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학교의 안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친구들을 배려해야 한다.

학년별로 세분화한 방역 교육도 필요하다. 고3은 성인만큼이나 어느 정도 개인 위생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학년이 내려갈수록 어려움이 많다.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춘 반복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 등교에 대해 아직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고3 입시를 위해 다른 학년, 학급의 등교를 짜 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높다.

큰 부담을 안고 '늦은 등교'가 이뤄졌다. 코로나19가 학교를 침범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철저한 방역만이 아이들과 아이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지켜줄 수 있다. 그게 책임 있는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js62@

사설

노사정 대화, 정부는 노동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체가 20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정세균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제총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도 참여하는 원포인트 대화다.

이번 대화의 최대 목표가 고용유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용사정은 이미 최악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공포가 커진다. 올해 4월까지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는 그동안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대기업들로 확산하는 추세다. 대기업들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향후 6개월 이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노인들과 청년층,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 어렵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세금으로 메우는 한계는 뚜렷하다.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간 입장의 간극이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

계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총고용 유지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부터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가 대립하는 이들 사안은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번 사회적 대화에 강성노조인 민노총의 목소리가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노사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상생(相生)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는 한 대타협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노사간 대립의 중재와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정부가 노동계에 기울고 휘둘러온 그동안의 자세로는 위기극복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가 분명하게 각각 해야 할 건, 기업들이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 경제와 고용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9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92곳(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2%, 당기순이익은 47.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충격이 시작된 단계인데도 그렇다. 2분기에는 훨씬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나.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긴급재난지원금 '유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서울시민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스타벅스에서는 서울시민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기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교보문고에서 책이나 사서 봐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그런데 교보문고도 대형 프랜차이즈라 서울시민을 제외하고 지방에선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자체도 매칭해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는 또 못 쓴다. 그래도 기자라고 주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많이 묻지만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이런저런 규제가 많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손에 들어가면 없던 규제도 생긴다는데 딱 그런 꼴이다.

또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권장하는 정부도 문제다.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고 하니 벌써 많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릴레이 기부하고 있다. 출입처인 기획재정부도 내부 논의를 거쳐 과장급 이상은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아마 민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성인 흥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돈을 쓰라고 주는 것이다. 소비가 미덕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소비는 악덕이고 '기부'가 미덕인 것 같은 이상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기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국민에게 돈을 주는가? 그냥 정부가 그 재원을 뽕뽕 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생각이 없었지만 총선표가 급한 여당에 먹살이 잡혀 그 뜻을 이루진 못했다. 오늘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찾아 헤매는 몽매한 백성을 위해 이제라도 사용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요즘 날이 좋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지방 재래시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좋지 않을까. soqood@

세무, 특!

상가건물 팔 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조물주도 부러워한다는 건물주이지만, 건물주도 세금은 무섭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매도 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포괄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매매계약서 현재 양도인의 임대차 현황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받은 양수인은 현재의 임대차 현황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임차인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이 불가능하다.

매매 당시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가 아니라면,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양도자와 동일업종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과세 유형을 주의해야 한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 포괄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기존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돼야 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업종과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하는 등 판단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실무상 사업 양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리납부를 이행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장윤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KB 차차차



GLOBAL ONE MARKET



‘매물대수1위, 중고차 거래 플랫폼’
편리성과 안심거래로
중고차 거래를 신뢰로 바꾸다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
혁신적인 통신 혜택으로
생활을 바꾸다

‘해외주식 원화거래 서비스’
해외주식 거래도
국내주식처럼 쉽게 바꾸다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KB 통합 포인트 플랫폼’
포인트 적립부터 결제까지
소비생활을 현명하게 바꾸다

‘내 일상에 꼭 필요한 암보험’
당신의 일상이 더 건강하도록
보험의 상식을 바꾸다

누리보세요! KB가 만들어가는 쉽고 편리한 세상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브모바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863호(2020.05.14)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 [KB차차차] 2020년 4월 글로벌리서치 <중고차거래플랫폼 리서치> 기준 [리브메이트]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0512-01466-ADP호(2020.5.12 기준) [글로벌원마켓]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2239호(2020년5월13일)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가능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221% 제비용 별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 국가 :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10/15/20/30년 갱신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00세입니다(담보별 상이). 또한,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 시점의 보험료 최초(갱신 전) 계약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사항 및 지급제한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필 제 30632호(2020.05.18)